



[디지털금융 시대] KB국민은행 인력·프로세스·문화 디지털 전환 03



Economy

코스피	2083.48 (+3.21)	코스닥	658.52 (+3.48)
금리 (연평균)	1.47 (-0.02)	환율 (원/달러)	1163.40 (-4.70) (10월31일)

‘갤럭시 효과’ 삼성, 실적 회복세

(스마트폰)

삼성전자 3분기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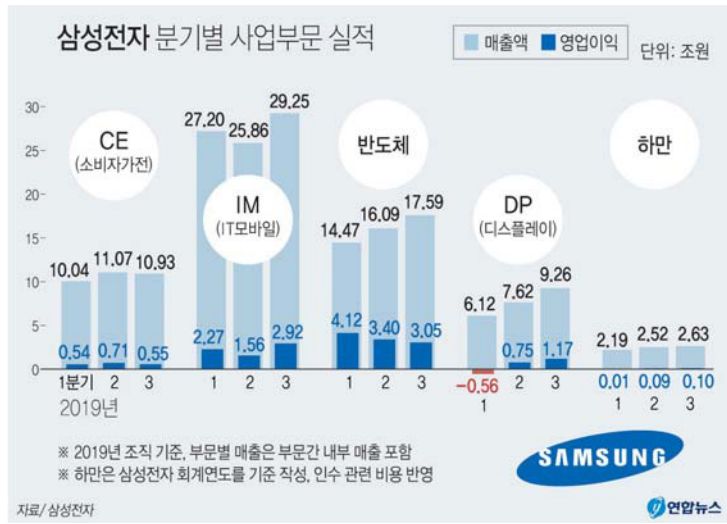
매출 62조, 영업이익 7.7조
IM부문 영업이익 3조 육박
메모리 반도체 부진 상쇄

삼성전자가 더 견고해졌다. 전반적인 사업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면서 메모리 반도체 율리현상 극복의 단초를 마련했다. 반도체 부문도 수요 증가와 시스템 반도체 성장에 따라 반등 가능성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62조원에 영업이익 7조 78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도체 부문이 메모리 불황 여파로 더 하락한 영향이다. 그러나 시스템 반도체 등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더 단단한 구조를 갖게 됐고, 비반도체 사업도 좋은 실적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그 동안 시설투자도 꾸준히



집행했다. 3분기에만 6조 1000억 원을, 올해 누적으로는 16조 8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14조원이 반도체에, 1조 3000억원이 디스플레이에 쓰였다. 올해 말까지 29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반도체가 23조 3000억원, 디스플레이가 2조 9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투자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

년 반도체 시장 회복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평택 등 신규 팹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반도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투자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폴더블 폰 생태계 확대와 신개념 라이프 스타일 가전 등 신규 시장 공략에도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3분기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가 매출 17조 5900억원에

영업이익 3조 500억원으로 예상을 상회했다. 고용량 메모리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글로벌 정세 불안에 따른 일부 고객사의 재고 확보용 수요 등이 실적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스템LSI 부문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전력반도체, 올레드 DDI와 함께 EUV 7나노, 이미지센서 등 파운드리 공급도 늘었다.

4분기에도 긍정적이다. 수요 확대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D램 1y 나노 공정 확대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으로 ‘초격차’를 더 벌린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에는 1z 나노 D램과 6세대 V낸드 제품 양산에 주력하며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등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해 리더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제4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

2016년 3월, ‘바둑의 신’으로 불렸던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을 압도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 인공지능 산업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달해 우리 주위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피커 형태로, 또는 의료 지원 형태로, 또는 공장자동화 형태로 상용화됐습니다.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붙박이 다가온 것입니다.

메트로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자리 잡을지 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2회(2016~2017년)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 주 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
-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09:00~11:30
- 장 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 주 최: 메트로경제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前 인공지능연구원장)
 -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SK텔레콤, 이스트소프트, 네이버, 현대모비스
- 참가비: 5만원(사전등록 무료)
- 참가신청: 제4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2019 코세페’ 오늘 개막

성운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과 방송인 강호동을 비롯한 내빈들이 31일 오전 서울 명동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2019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오픈링 거리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경기 30분대로... GTX 노선 추가 검토

당정 ‘광역교통비전’ 마련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 단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충하고,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에는 도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대 광역도시권 교통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만들어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은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30% 절감하고 환승시간도 30% 감소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밝힌 목표는 당정이 마련한 ‘333 광역교통비전’의 골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행

광역철도 730km, 도시철도 710km인 철도연장을 두 배로 확충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광역버스 확대 및 교통시설 간 빠른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가 제시됐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미 A·B·C 3개의 노선이 추진 중인데, 이 방안이 성사되면 GTX-D 노선이 신설되는 셈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美연준 금리 0.25%p 인하 한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윤면식 부총재 “기대와 부합”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에 대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관련 상황점 위원회(FOMC) 관련 상황점 미 연준의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준은 29~30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존 1.75~2.0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낮췄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인하 단행이다. 지난 7월 말과 9월 중순 이후 세 차례 연속 금

리를 인하하며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떨어뜨린 것이다.

특히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지난달 성명에 포함됐던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기준금리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할 것”이란 문구를 추가하며 추가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부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대체로 시장 기대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리 인하에 시장 반응이 대체로 주가 상승, 금리 하락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우려가 컸던 자본유출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위기마다 기술에 투자... 독심으로 백년기업 향해 전진

SAMSUNG 삼성전자 50년

〈中〉100년 기업, 초격차 더 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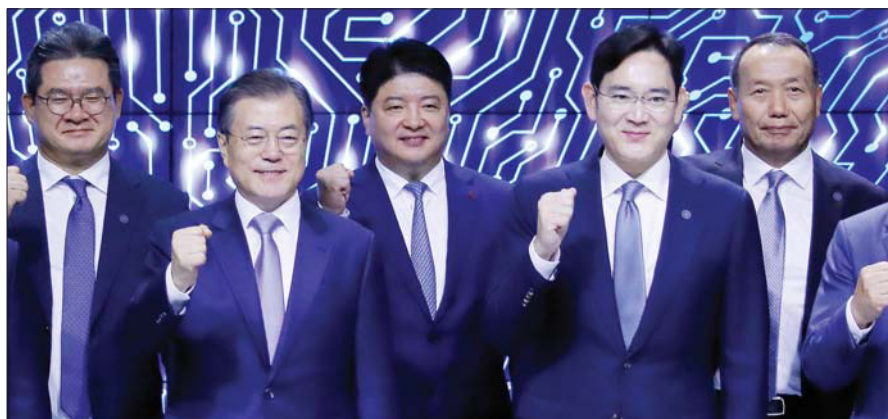
7나노 개발·양산 대만보다 먼저 성공
AMD·퀄컴에 차세대 제품 수주
메모리반도체 여전히 초격차 유지

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13조원
큐디 디스플레이 육성전략 발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 라인 전경.

/삼성전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창사 50주년을 맞은 올해 큰 위기를 겪었다. 주력 사업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실적 악화가 심각했고,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굴하지 않았다. 허리를 졸라매면서 몸을 숨기기도 하지만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 개발(R&D)에 매진하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그 결과 더욱 단단해진 몸으로 내년 반등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도전은 '반도체 비전 2030'이다.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이견의 회자

의 '비전 2020'을 잇는 차세대 먹거리 확보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파운드리 사업 1위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일찌감치 극자외선(EUV) 공정을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 초미세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그 첫번째 성과가 바로 7나노 공정이다.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 독차지해온 대만 TSMC보다 한 발 앞서 7나노 개발과 양산에 성공하면서 AMD와 퀄컴 등의 차세대 제품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인텔과 애플 등 팹리스도 업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비전 2030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내 팹리스와 패키징 등 중소기업 지원도 약속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삼성전자를 7번째 '자상한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센서사업부 신설도 시스템반도체 업계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빠르게 성장하는 보안과 전장 시장까지도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미지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던 소니를 앞질러 1억800만화소제품

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 향상에도 속도를 붙였다. 오랜 기간 쌓아온 반도체 노하우를 활용해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1zD램에 이어 7세대 V낸드 양산까지 목전에 앞둔 가운데, 차세대 메모리 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미 STT-M램은 파운드리 반도체와 결합해 시장에 빠르게 확산 중이며, P램 역시 시장 수요에 따른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빠른 시일 내

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13조원을 투자하는 '큐디 디스플레이'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다.

큐디 디스플레이는 자체 발광 소자인 퀀텀닷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로, 유기 발광 물질을 사용하는 OLED와 달리 번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형 OLED를 건너 뛰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초격차'를 노리는 셈이다.

아울러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더월'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양산 효율화를 통해 원가를 떨어뜨리면서 조만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재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밖에 삼성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밀레니얼을 겨냥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사업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더 프레임'과 '세로', 비스포크 냉장고 등이 주인공이다. 성능뿐 아니라 활용성 확대와 디자인 강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했다. 올 초에는 '프리즘 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가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 1면 '美 연준 금리인하...'서 계속

5초만에 계좌이체... 터치 몇번으로 이율 6% 적금찾아

오픈뱅킹 써보니

은행 예·적금 상품 한번에 비교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전환도
대출상품·조건·한도 비교 가능

계좌등록·인증방식 까다롭고
앱 설치부터 계좌등록까지 20분
금융소외계층엔 이용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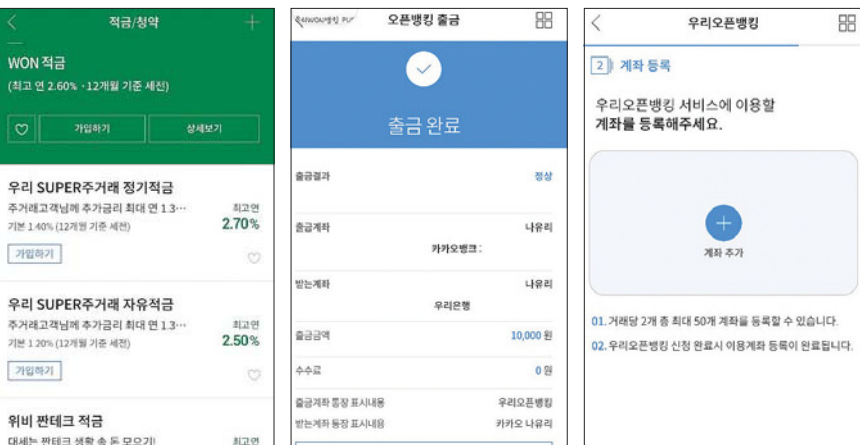
지난 10월 30일, 은행 앱 하나로 할 수 있는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열렸다. 10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경남·부산·제주·전북) 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계좌를 등록하기만 하면 손쉽게 계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오픈뱅킹은 계좌 등록 시 조회·이체가 쉽고, 예·적금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좌등록과 인증방식이 까다로워 핀테크 앱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도 적잖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핀테크 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면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앱에서 카카오톡 계좌조회 후 송금

31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은행 앱 '우리 WON뱅킹'을 설치했다.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인증하고 6자리비밀번호를 설정했다. 5초남짓 지났을까, 앱에 우리은행 계좌가 연동됐다.

오픈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른 은행의 계좌를 등록해야 했다. 우리은행 앱에서 계좌추가를 눌러 카카오톡



우리은행 오픈뱅킹 앱내 적금 상품 조회 결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왼쪽부터) 우리은행 오픈뱅킹 앱에서 카카오톡 계좌를 조회, 이체한 내역. 오픈뱅킹 계좌추가 화면. /나유리 기자

크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이후 출금(이체)약관 동의와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카카오톡 계좌의 잔액과 거래 명세가 조회됐다.

바로 송금도 가능했다. 이체금액 1만원을 입력하고 우리은행 계좌를 선택하니, 수수료 '0원'이라는 표시와 함께 출금이 완료 됐다는 결과가 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체가 완료됐다.

여러 은행의 앱을 띄워 예금상품을 비교할 필요도 없었다. 예금상품(입출금, 예금, 적금·청약) 중 적금·청약을 선택하니 2.70%를 제시하는 우리 슈퍼(SUPER) 주거래 정기 적금이 가장 위에 올랐다. 기존 우리은행 앱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위에 있는 적금을 선택했겠지만 오픈뱅킹은 아니었다. 손가락으로 톡톡 몇 번 화면을 내리니 국민은행의 위비잔테크 적금(2.70%)과 조건에 따라 최대 6%까지 제공하는 우리여행적금도 보였다. 한번에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상품은

신규가입과 전환가입이 가능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증빙서류등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해야 했다. 신규가입을 선택하고 홈택스와 연계해 근로소득증빙서류가 바로 제출됐다

대출상품의 대출조건과 최대한도도 비교할 수 있다. 대출 상품에는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4가지다. 오픈뱅킹에서는 모바일에서 확인되지 않던 인터넷 영업점 상품도 클릭만 하면 확인이 가능했다. 총 16개의 신용대출 상품 중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한 상품은 11개, 영업점으로 신청해야 하는 상품은 5개였다.

◆까다로운 계좌등록 인증방식 불편

그러나 오픈뱅킹의 계좌등록과 인증방식이 까다로운 점은 아쉬웠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하나의 앱을 선택해 계좌 등록을 하고 고객 편의성에 따라 주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기도 하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앱 이용 시 계좌조회만 누르면 확인되던 모든 계좌를 하나

하나 직접 입력하고 있거나 수수료 무료 횡수 제한이 있더라도 핀테크 앱을 이용하는 편이 나을 듯 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다음 달 11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와 연동되면 보유계좌번호를 자동 조회해 등록할 수 있게 한다. 핀테크 앱처럼 계좌조회를 통해 등록하고 싶은 계좌를 선택하면 바로 조회·이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는 까다로운 인증방식이다. 대다수 은행이 오픈뱅킹을 위해 앱을 신규출시 했다. 해당은행 앱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오픈뱅킹 앱을 설치하면 공인인증서나 보안 카드 등 까다로운 인증방식이 필요했다. 앱 설치부터 계좌등록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모바일 이용을 어려워 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오픈뱅킹의 편리성을 체험해보기도 전에 포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오픈뱅킹 앱에 대한 설명 부족과 예적금 대출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대다수의 은행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홍보만 강조할 뿐 앱을 사용하기 위한 인증방식이나 계좌등록방법은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 설명서에 있어야 할 버튼은 없거나 다른 위치에 있었다.

한눈에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변별력은 없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에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한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차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가면 상품은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2월 18일부터 핀테크 기업들까지 오픈뱅킹 서비스에 뛰어들어 경쟁이 본격화하면 소비자 사용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자본유출 등 우려 완화 美 금리, 영향 크지않아”

그는 또 금융시장의 평가임을 전제한 뒤 "의결문에는 다소 그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제록 파월 의장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는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결문에 있었던 (경기)확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한다"는 내용이 '정책금리 스탠스가 적절한지 여부를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부분은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의 이번 결정이 한은의 통화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준은 올해 들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우리나라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의미로 풀이된다.

윤 부총재는 "자본 유출 등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연준의 정책금리 방향이 유일한 고려 사안은 아니고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큰 폭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지난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행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변화된 것이 위기의 교훈"이라며 "별써 물가안정에만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른 상황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인력·프로세스·문화 디지털 전환... “금융의 최종 목적지”

디지털금융 시대 KB국민은행

은행 간 장벽을 허문 ‘오픈뱅킹’ 서비스가 닦을 올렸다. 디지털 금융이 본격적인 향해를 시작한 셈이다.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과 금융 서비스의 무한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디지털 기술 또는 인터넷 기반 기술의 발달은 금융의 방법과 영역을 확장시켰다. 디지털 금융 시대는 비용·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에게는 도태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은행의 디지털 전략과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리브모바일, 손으로 출금 서비스, 인터넷 지점, 오픈뱅킹 서비스. 디지털 혁신을 변화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지만 KB국민은행의 디지털 중심축은 고객과 직원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고객과 직원 중심의 디지털 KB’로 전략방향을 잡고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왔다. 단순히 온라인과 모바일의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프로세스·문화 등 조직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다.

전 사업 부문 디지털 전환 진행형 허인 은행장 고객중심 디지털 강조 타은행 계좌조회·출금·이체 등 편의성 높은 ‘오픈뱅킹’ 선보여

◆디지털의 중심은 ‘고객과 직원’ 허인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K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선포식’에서 대전환을 선언한 이후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한 창구를 비롯해 바이오 생체인증 도입과 비대면 플랫폼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과 직원 업무 혁신, 디지털플랫폼의 지속적인 진화 등 전 사업부문에서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의 디지털 전략의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했다는 점이다. 디지털서식 기반의 종이 없는 창구인 디지털 창구를 도입했고, 태블릿 모니터 서식 작성으로 고객은 창구 업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다. 디지털 실험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문을 연 ‘인사이트’ 지점은 모든 은행업무를 IT인력이 전담하고,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미리 운용



지난 28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KB국민은행 혁신금융서비스 ‘리브모바일’(Liiv M) 론칭 행사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리브모바일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테스트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리브모바일, 금융에 통신을 더하다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최초의 서비스 ‘리브모바일(Liiv M)’은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오는 4일부터는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리브모바일은 기존 대비 합리적인 요금제가 가장 강점이다. 모든 요금제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기본으로 무료 제공한다. 가입자는 월 사용 데이터 용량만 선택하면 된다. 리브모바일은 ▲급여 또는 4대 연금 이체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KB국민 카드 결제실적 보유 ▲스타클럽 등급 할

인 ▲제휴기관 할인 등으로 통신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최대 2만2000원이다. 이에 더해 제휴카드 청구할인 최대 1만5000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3만7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월 기본 요금은 4만4000원인 LTE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업계 최저 수준인 월 7000원에 이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달리 약정부담이 없고,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12월 중순부터는 셀프(Self) 개통과 친구결합 할인, 잔여데이터 포인트리 환급, 유심(USIM) 인증서 등의 본격적인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편의성 극대화 KB국민은행은 오픈뱅킹 시작과 함께 고객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개편 서비스를 선보였다. KB스타뱅킹에서는 다른은행 계좌의 조회는 물론 출금을 통한 이체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접속하자마자 ‘다른은행’ 화면을 선택하면 타행의 계좌잔액과 거래내역 조회, 이체를 하면 된다. 타행 계좌 역시 등록만 해놓으면 이체 수수료 등은 면제다.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잔액을 하나의 계좌로 모을 수 있는 ‘잔액 모으기’ 서비스도 내놨다. 최대 5개 은행의 입출금계좌에서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자금을 한 번에 끌어올 수 있다. 다른은행 계좌에서 바로 출금해 원스톱으로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KB 스타(Star) 정기예금’과 ‘내담대로 적금’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는 12월 핀테크 기업들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진정한 디지털금융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오픈뱅킹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선택하는 금융의 최종 목적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최대 매출에도 ‘파이공’만 웃었다... ‘속 빈 강정’ 신세로

‘황금알’ 면세점의 몰락 (中) 대기업 ‘빅3’도 출혈경쟁

‘올해 매출 20조원 돌파 코앞’, ‘누적 적자 못이기고 결국 면세 사업 반납.’ 면세점의 매출 규모는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급감하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9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2조 2421억원으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1.9%나 증가한 수치다. 3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1조 6568억 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종전 역대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하반기 매출 9조 7608억 원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첫 연매출 18조원을 넘어 올해는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매출은 매년 새롭게 경신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손해라는 것. 후발주자로 출발한 한화와 두산은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면세 사업을 반납했다. 국내 면세점 ‘빅3’인 롯데, 신라, 신세계의 사정도 크게 좋지는 못하다. 실제로 호텔신라의 2019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면세 부문 매출은 시내 면세점에서만 37% 늘어난 8564억원, 공항면세점까지 합치면 사상 최대인 1조 338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해당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손진영 기자

매출 역대 최대지만 영업이익은 줄어 ‘파이공 중심’ B2C서 B2B로 변모 의존도 높지만 마땅한 대안책 없어 지난해 송객 수수료만 1조3000억 적자 운영·신규 출점... ‘업계 시름’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451억원에 그쳤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반된 실태를 알 수 있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는 않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 관세, 통화 등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내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면세점의 실적악화는 중국 보따리상(파이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올해는 파이공 매출 의존도가 80%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근본적으로 파이공 위주의 매출 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파이공을 대신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유커의 증가로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급감했다. 결국 면세점들의 파이공 모시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면세점은 중국 여행업체에 손님을 보내주는 대가로 구매액의 20~30% 안팎을 송객 수수료로 주고 있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상품을 많이 팔아도 송객 수수료와 마케팅비 등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파이공은 여행사가 데려다주는 면세점에서 주문 받은 물건들을 사들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송객 수수료는 2015년 563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181억 원으로 늘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수수료 경쟁은 사그라들었지만 업체 자체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는 등 파이공 유치 경쟁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말했다.

최근 2년새 면세점 시장은 유커를 상대하는 B2C 형태에서 파이공 위주의 B2B로 변모했다. 이렇게 업계의 상황이 변했는데도 정부는 올 연말 신규 면세 특허권을 발급한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만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라며 “면세점을 늘린다고 외국인 관광객이 물리는 것이 아니다.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의 시내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빅3’가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화와 두산이 각각 1000억원, 600억원씩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잇따라 면세 사업 특허를 반납한 상황에서 무리를 감수하면서 시내면세점을 확대할리 만무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냉장고·에드워시 등 생활가전도 실적 한뼘 IM부문도 큰 성과를 거뒀다. 매출이 29조2500억원, 영업이익이 2조92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다. 갤럭시 노트10과 A시리즈 판매호조와 함께, 중저가 라인업 전환 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특히 크게 개선됐다. 4분기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다소 침체되면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5G 수요 성장에 발맞추고 폴더블 제품 리더십을 통해 주도권을 공고히한다는 방침이다. CE부문은 3분기 매출액이 10조 9300억원, 영업이익 55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쟁 심화에도 자리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생활 가전은 비스포크 냉장고와 에드워시 등 혁신 제품 판매 확대로 실적을 높였다. 4분기에는 성수기를 맞아 QL 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강화와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역시 매출 9조 2600억원에 영업이익 1조 170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지켜냈다.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 실적이 다소 악화됐지만, 중소형 OLED 공급 확대도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2020년에는 5G 스마트폰과 폴더블 등 신제품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juk@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 재편... 2030년까지 2배로 확충

대도시권 철도망 확충 방안 발표

지하철 3호선·9호선 구간 연장 대화~운정은 기획 용역 진행중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이 철도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가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과 도착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정시성'이 보장되고 친환경적인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지역 민원이 제기됐던 9호선 연장과 인천2호선 신안산선 연결 방안 등을 본격 추진한다. 서부권을 관통하는 또다른 광역급행철도(GTX)를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3호선 연장·인천2호선 신안산선에 연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의 핵심은 광역철도 확충이다. 이는 3기 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열악한 교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온 1·2기 신도시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구간,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대화~운정 연장은 현재 사업재기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강일~미사 구간 연장은 하남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인천2호선을 인천대공원역에서 신안산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대광역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김포한강선은 검단으로 연결된다. 현재 김포한강선 방화~양곡 구간 사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으로, 이를 통해 김포한강선이 검단 지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양선을 일산 식사지구까지 추가 연장하거나 서울 6·9호선을 동북권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 과제로 정했다. 고양선 새철역~고양시청 구간은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 연장도 사업 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위례~과천선 북정~경마공원 구간 연장 사업과 3호선 오금~덕풍 구간 연장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은 예타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한다.

◆"수도권 서쪽에 GTX 노선 하나 더" 대광역은 수도권 주요 거점을 GTX로 연결해 과리와 린دن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선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권에 신규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착공한 GTX-A(파주 운정~화성 동탄)와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은 각각 2023년, 2024년 준공할 수 있

도록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예타를 통과한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와 GTX-C(양주 덕정~수원)는 각각 2021년 말,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예타 통과 후 최대한 서두르면 3년 만에 착공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GTX B와 C의 착공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천선)에서도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1호선(경부선)에는 급행열차를 넣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중에는 급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에 급행 체계가 가능하도록 건설함으로써 급행 운행비용을 현재 16%에서 2030년 35%로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트램-트레인' 도입 신교통수단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독일 등지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트램-트레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트램-트레인은 도시 내부에선 트램으로서 시속 30~50km로 운행하다가 외곽지역에서는 일반 철도로 시속 100km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주요 광역도시권**
 -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 환승시간 30% 감소
- 1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 주요 거점 30분대 연결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730 → 1,577km)
 - 도시철도 710 → 1,238km
 - 도로의 간선기능 회복
 - 새로운 교통수단 트램 도입
- 2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 광역버스 대폭 확대
 - 고속 BTX 도입
 - 주요 거점 환승센터 구축
 - 다양한 요금제 도입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 3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으로 불편 최소화
 - 광역교통시설 투자체계 개편
 -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 강화
- 4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 미움껏 승객수 있는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
 - 최종 목적지까지 끊이지 않는 서비스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의 빠른 속도로 이동해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중교통이다.

기존 철로를 활용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독일 카펠시 등 선진 유럽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앞서 2017년 전북도가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트램-트레인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연합뉴스

주요 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 복층화로 교통개선 '시동'

지하는 자동차, 지상은 대중교통 M버스 운행지역 지방까지 확대 전기 2층버스로 친환경성도 강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도로가 신설된다. M버스 등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서울 도심까지 들어오기 보다는 적절한 환승지점을 정해 승객을 내리고 회차하게 하는 전략을 추진한

다.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이번 광역교통 도로대책의 핵심은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심도(大深度; 지표 기준 40m 이상 깊이) 지하도로 신설 방안이다.

수도권 동서횡단축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비롯해 자유로, 부산·울산 권의 사상~해운대 구간에 대심도 지하

도로 신설이 검토된다.

동서횡단축의 경우 강변북로는 수변 공간이 넓지 않아 올림픽대로에 지하도로가 신설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대심도 지하도로가 설치되면 지하부는 자동차 주행도로로, 지상부는 간선 급행버스(BRT)나 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차로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연구 단계인 만큼 공사로 인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순환고속도로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창~김포, 판교~퇴계원 등 2곳의 상습정체구간에도 지하도로를 뚫어 복층화한다.

제2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공사를 서둘러 2026년까지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고속 BTX도 도입

M버스 운행지역은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류장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M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M버스 예약제를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와 우선신호 체계를 적용하는 등 지하철 시스템을 갖춘 S-BRT를 구축한다.

S-BRT는 교차로 무정차 운행이 가능하고 지하철처럼 사전에 요금을 징수하는 정류장 등을 갖춘 수 있다.

세종시에서 BRT 노선을 S-BRT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광역은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 2층버스가 투입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수송력도 강화된다.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까지 고속으로 이동하고 서 간선도로와 접한 지하철역 인근 지하 환승센터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회차함으로써 서울 도심 진입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피한다.

이를 위해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 지하에 광역버스 전용차로를 만들어 환승센터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하면 기존 광역버스보다 이동 속도가 30% 이상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빠르고 편리한 환승 시스템 구축

환승센터는 장소별로 도심형, 회차형, 철도연계형 등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심형 환승센터는 지하철역 삼성과 잠실, 강남, 사당, 여의도, 서울, 청량리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회차형은 지하철역 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선바위, 청계산입구, 강일에 설치되고, 철도연계형의 경우 운정, 킨텍스, 대곡, 부천종합운동장, 별내 등에 지어진다.

이와 함께 신도시 등 교통소의 지역에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연합뉴스



/유도이미지

회계발전 공로... CPA 윤종규 회장 '철탑산업훈장'

〈공인회계사〉

〈KB금융〉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첫 수상자로 선정
해외투자 유치 등 공헌 평가
활발한 사회공헌 등 이바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금융위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회계발전 공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산업훈장의 주인공이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윤 회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이번 '회계의 날'부터 회계발전 유공 관련 정부포상이 새로 생겼으며, 윤 회장이 산업훈장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회장은 공인회계사(CPA)로서는 단일회계법인에서 부대표까지 지냈다.

윤 회장은 공인회계사로 재직하던 당

시에는 ▲회계와 세무 선진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기여 ▲해외투자 유치와 공인회계사 업무영역 확대 등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2014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업의 인프라와 문화로 정착시키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회계발전에 이바지했다.

윤 회장은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회계산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기본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자본 형성의 주춧돌이자 파수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회계산업에 종사하던 당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부실 금융사에 대한 경영 평가 등 워크아웃 업무를

주도하며 투자은행(IB)이 독식하던 부실채권 매각업무와 인수합병(M&A) 업무에도 국내 회계업계가 참여하는 지평을 열었다"며 "외자계 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부터 폐쇄에 이르기까지 토달 서비스 제공을 선도한 것도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한편 회계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는 "회계사가 된다는 것은 직업의 마지막 목표가 아닌 사회의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면서 "경제주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끌고, 나아가 글로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대훈 농협은행장, 홍콩지점 개설 추진

홍콩투자청장 만나 면담 진행
스타트업기업 진출지원 등 논의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스티븐 필립스 홍콩투자청장과 면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대훈 행장과 스티븐 필립스 홍콩투자청장이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홍콩지점 개설을 비롯해 한국 스타트업기업의 홍콩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스티븐 필립스 홍콩투자청장과는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홍콩투자청장은 한국 스타트업기업과 만나기를 기대하며, 이 행장은 금융과 부동산, 농식품업 등 다양한 분야의 36개 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하는 NH디지털혁신캠퍼스 방문 및 지속적인 교류를 제안했다.

이 행장은 "홍콩은 자본시장 친화적 시장 환경과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했으며,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투자금융(IB) 전문가와 거래정보가 집결된 곳"이

라며 "농협은행은 홍콩의 풍부한 신디케이트론 딜 시장 참여를 목표로 지점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올 4월 홍콩금융관리국에 은행업 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년 4분기 중 인가를 취득해 오는 2021년 상반기에는 홍콩지점을 개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회계개혁, 기업 성장위한 필수적인 투자"

은성수 '회계의 날 기념식' 참석
"각종 개혁 시장안착 위해 도울것"

"회계 개혁은 기업의 정상화 과정,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회계개혁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도 있지만 제도변화로 인한 불편함, 비용부담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현장의 상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균형된 관점에서 각종 회계개혁 조치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영업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회계업계는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 영업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해 감사 품질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이번 개혁의 정당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회계개혁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성을 스스로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을 비롯해 사회전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회계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그릇된 의사결정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

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로 연결돼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 최종경 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선다는 믿음을 갖고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개혁 과업에 앞장서 왔다"면서 "제도개혁 못지않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회계문화를 창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의 날은 회계개혁법인 새 외부감사법이 제정·공포된 20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올해 두 번째 행사가 열렸다. 이번 회계의 날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정부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정관계 및 회계업계 인사와 회계발전유공수상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훈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등 총 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디지털전환' 하나금융, 쏠림직원 코딩교육

하나금융그룹의 전 임직원이 코딩교육을 받는다. '순님중심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의 전환을 위해서다.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생존의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생존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디지털 비전 선포식' 이후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조직구조 개편과 조직문화 전환을 실행했다.

한준성 하나금융지주 그룹디지털총괄 부사장은 31일 "디지털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디지털 역량은 IT부문 직원만이 아닌 전 금융인의 기본역량이자 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고객께 디지털에 감성을 더한 더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며 온라인 서비스가 금융의 주요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업들도 기업 DNA 전환과 디지털 인재 육성을 통해 디지털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전 임직원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첫 단계로 임원부터 사원에 이르기까지 그룹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스크래치를 활용한 코딩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스크래치는 간단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직접 만들고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초 코딩 프로그램이다. /홍민영 기자

우리銀, 프롭테크 활용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스페이스워크 등과 제휴
부동산 가치 증대 논의도

우리은행이 프롭테크(PropTech)를 활용한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프롭테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 부동산 솔루션 사업자인 스페이스워크 및 주택임대관리 플랫폼 사업자인 알에셋마스터리스와 제휴를 마쳤다.

스페이스워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건축설계 기술을 활용한 투자자문 플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30일 우리은행 청담투체어스 프리미엄센터에서 제휴사 스페이스워크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가치 증대 및 절세 전략 세미나'를 실시했다. /우리은행

랫폼 '랜드북(Landbook)'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부동산 가치 제고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랜드북과 연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알에셋마스터리스는 주택임대관리에 모바일 솔루션이 도입된 '스마트하우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으로 공실 및 연체관리 서비스를 우리은행 고객에

게 우대된 조건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우리은행 청담투체어스 프리미엄센터에서 제휴사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가치 증대 및 절세 전략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과 절세 방법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허창수 “대만 통해 글로벌 진출 확대”

(GS그룹 회장)

GS그룹 타이베이에서 사장단회의 “대만 혁신 기업 주목할 필요있어”

GS그룹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사장단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장단회의에는 GS가 대만 및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허창수 GS 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허창수 회장은 “GS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기술을 앞세워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꿈을 이루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만의 혁신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허 회장은 “연관 산업으로의 확장 모델 같은 기존 방식으로는 기업이 더 이상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한계에 다다른 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열린 마음으로 글로벌 기업의 혁신 DNA를 배워 우리의 역량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GS 회장이 10월 30일부터 이틀간 대만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전기 스쿠터 혁신 기업인 '고고로'를 방문하고 전기스쿠터를 시연해 보고 있다. /GS그룹

허 회장에 따르면 한국과 50년의 경제협력 역사를 가진 대만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교역량인 375억달러를 기록해 한국의 6위 교역 파트너가 됐다. 또한 신남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 등과도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대만은 GS가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 가는데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현대차그룹, 중국법인에 이광국 사장 선임

리더십 변화로 현지 대응력·경쟁력 ↑

현대자동차그룹 이광국 부사장(사진)이 중국사업총괄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현대차는 31일 이같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중국기술연구소에 스벤 파투쉬가 연구소장을 새로 영입했다. 스벤 소장은 앞서 폭스바겐 중국 R&D 담당을 맡고 있었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리더십 변화를 통해 현지 대응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최근 중국사업 부문 조직개편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4월 중국사업 임직원을 중국으로 배치하고 8월에는 중국 지주사 중심 조직 재정비도 마쳤다.

9월에는 동평위예다기아에 리펑 총경리를 임명하기도 했다. 기아차의 중국법인 첫 현지인 CEO다. 이 신임 사장을 선임하면서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장은 앞으로 현대·기아차 중국사업을 총괄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 중장기 비전 수립과 사업 전략 구체화 등을 이끌게 된다. 이 사장은 풍부한 해외 사업 경험과 다양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해 높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외정책팀장과 영국판매법인장, 와싱턴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스벤 소장은 중국 시장에서 10여년간 쌓은 전문 지식과 통찰력으로 현대·기아차의 중국 현지 모델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다름슈타트 공대 전자제어공학과를 졸업하고 상하이 폭스바겐에서 중국 R&D 부문을 맡아 이차 폭스바겐 연구개발을 이끌었다.

/김재홍 기자 juk@

LG전자, SW분야 공인시험기관 자격 갖춰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LG전자 SW공인시험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는 국내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을 갖추게 됐다. 가전과 모바일 등 영역에 필수가 된 소프트웨어 품질 신뢰를 대폭 강화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SW공인시험

소를 통해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 측정에 관한 국제표준 ISO/IEC 25023에 따라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SW공인시험소가 발행한 공인시험 성적서는 국제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따라 미국 등 70여개 국에서 인정받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동등한 효력과 공신력을 갖는다.

/김재홍 기자

정비 아무리 빨라도 보름 이상 항공업계 ‘보잉 리스크’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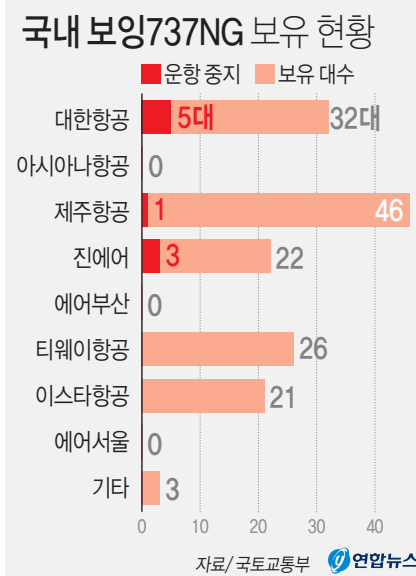
국내 비행횟수 3만회이상 42대 나머지 108대 점검 전까지 운항 보잉사, 결함부위 새것 교체 할것

미국 보잉 항공기 B737NG 계열 기종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 ‘보잉 리스크’가 더 커질 전망이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연방항공청의 긴급 지시에 따라 보잉의 B737NG 계열을 점검한 결과, 누적 비행 횟수가 3만회를 넘긴 1133대 중 5%인 53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정지됐다.

국내 항공업계에도 B737NG 계열의 비행기 150대가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돼 ‘보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 국내에 도입된 150대 중 비행 횟수 3만회가 넘는 42대를 점검한 결과,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나머지 108대는 점검 이전까지 정상 운항할 것으로 알려져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국내 9개 항공사 경영진을 비롯한 운항·정비본부장 등과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보잉사 B737NG 계열의 동체 균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누적 비행횟수가 2만2600회~3만



회 미만인 항공기 22대에 대해서는 올 11월 이내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또한 2만2600회 미만에 해당하는 항공기 86대도 기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조속히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아직 점검을 마치지 않은 108대의 항공기가 계속 정상 운항할 것으로 보여 ‘보잉 리스크’는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보유 중인 항공기가 전부 보잉 737NG 계열인 제주항공(45대)과 티웨이항공(26대)은 현재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를 제외하고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누적 비행 횟수가 3만회 이상인 비행기 10대는 모두 점검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도 “현재 3대가 기준에 도달해 점검을 받았고 나머지 항공기 중 10대만 22600회 초과에 해당한다”며 “점검 전까지는 정상 운항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공기가 점검을 받기 전까지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운항한다는 말이다.

보잉사의 기술진은 11월 초 한국을 방문해 결함이 발견된 항공기를 수리하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은 결함 부위의 부품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동체 균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는 보잉 기술진이 도착한 이후에도 점검과 부품 교체 등에 최소 2~3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단 제작상의 문제이긴 하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 설계 혹은 조립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실치는 않으나 보잉사의 기술진이 방한해 2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술진이 맡아 수리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네이버, 금융회사 ‘네이버파이낸셜’ 출범

주식·카드·보험까지 사업 확장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서비스 고려

네이버가 내년엔 ‘네이버 통장’을 출시해 금융 사업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일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설립과 관련해 통장, 주식·보험, 신용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본격적인 금융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초대 대표를 맡은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31일 실적발표 컨퍼런스를 통해 “금융상품의 경우 2~3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들이 적은 금액으로 쉽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 커넥트20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네이버페이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 쇼핑의 결제 서비스에 연계될 후불 결제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

며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취득이 가능한 신용카드 및 예·적금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색·페이·부동산 등 금융 관여도가 높은 트래픽을 적극 활용해 금융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미래셋과 협업해 새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결제 규모 확대를 통해 금융 사업 기반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6648억원, 영업이익 2021억원, 당기순이익 85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SKT, 5G 가입자 늘어 매출 증가했지만 투자비에 ‘발목’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 3·4분기에 영업이익 302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고 10월 31일 공시했다. 올 3·4분기 매출은 4조5612억원, 순이익은 274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증가, 73.9% 감소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매출은 5G 가입자 확대에 2조4864억원을 기록해 전

년 대비 0.1%,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SK텔레콤 5G 가입자는 9월말 기준 154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는 3만1166원으로 전분기보다 1.3% 증가했다. 5G 가입자가 늘어나며 고가 요금제 가입자 또한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5G 상용화는 마케팅 비용과 설비투자(CAPEX) 증가도 이끌어 영업

이익에도 영향을 끼쳤다. SK텔레콤은 올 3·4분기 설비투자 661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64.4% 늘어난 규모다.

5G 가입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마케팅비도 7878억원을 투입해 전체 비중의 27.1%에 달한다. SK텔레콤 측은 현재 44% 이상의 5G 마켓 비중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인 기자 skni@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전기차배터리

친환경 자동차 시대

SK가 전기차 배터리로 앞서갑니다

더 빨리 충전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안전한 고성능 배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혁신이 자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SK 이노베이션

KT, 5G 초저지연 기술 세계 첫 성공 자율차·스마트공장 보급 빨라진다

평균 8ms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
무선 전송시간 단위 4분의 1로 낮춰

KT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기업전용 초저지연 5G 네트워크 기술 시연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T 5G 오픈랩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명 5G FAST.NET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단말-네트워크-서비스'까지 전체 데이터 전송을 왕복 10밀리초(㎍) 이하의 지연 내에 전송하기 위한 KT의 초저지연 인프라 기술이다.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마트공장 자동화 관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용 5G 전용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5G FAST.NET 시연에서는 세계 최초로 국내 28㎐ 대역을 지원하는 5G 기지국 장비와 단말을 사용해 실제 무선 환경에서 최소 5ms, 평균 8ms 수준의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선보였다. 5G 표준 MEC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코어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을 통해 실제 테스트했다.



KT 직원이 28㎐ 초저지연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인 FAST.NET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 /KT

현재 상용 서비스 중인 3.5㎐ 대역의 5G 네트워크에서는 10~20ms 수준의 지연이 발생한다. 이번에 선보인 KT FAST.NET에서는 28㎐의 초고주파 신호를 활용해 기존 3.5㎐ 대역에서 0.5ms였던 무선 전송시간 단위를 4분의 1 수준인 0.125ms로 낮췄다. 또 무선 및 유선 전송 구간에서의 지연 요소를 추가적으로 개선해 전체 지연 시간을 5ms까지 단축했다.

KT는 이미 지난 7월에 3.5㎐ 대역

에서 무선 오류를 줄여 데이터 재전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지국과 단말 간 불필요한 전송 절차를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전송 지연을 10ms 수준으로 단축하는 FAST.NET 기술을 1차로 개발한 바 있다. 이러한 FAST.NET 기술을 28㎐ 밀리미터파 시스템에 확대 적용하고 5G 표준 MEC 기술을 코어에 적용해 전체 왕복 지연 시간을 2분의 1 수준으로 다시 단축하는데 성공한 것. 향후 기지국과 단말의 추가 성능 개선을 통해 평균 5ms 이하 수준까지 왕복 지연 시간을 낮출 예정이다.

5G FAST.NET 기술이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에 적용되면 차량간 운행상대 정보 전송과 고화질(HD)맵 데이터 전송 등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안전해지고, 스마트 공장에서의 로봇 제어, 머신비전을 활용한 실시간 공장관제 등이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현된다. 특히 KT는 5G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을 위해 대구 알파시티에 5G FAST.NET 기술을 적용해 연말까지 필드 검증을 완료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31일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이낙연 국무총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이 경찰수소버스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MOU)을 기념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버스 도심 공회전 매연 사라진다

현대차, 경찰 수소전기버스 공개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로 교체
산업부·환경부·경찰청과 업무협약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 수송을 담당할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를 10월 31일 공개했다.

현대차가 시내버스 기반의 저상형 경찰 수소전기버스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승차인원과 화물(경찰 장비)실 공간 등 경찰버스의 특성에 맞춘 고속버스급 경찰 수소전기버스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스내 냉난방 장치 사용으로 도심 속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찰버스가 진동이 덜하고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해 수소전기버스로 대체될 경우, 탑승자 피로도 절감은 물론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1대를 공개하고, 경찰수소버스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는 기존 경찰버스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운전자 포함 29인이 탑승할 수 있으며, 국내 도로 여건과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차체 바닥이 높은 고상형으로 제작됐다.

'넥쏘'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95kW 스택 2개가 적용됐으며, 상용 전용 수소탱크를 차량 지붕에 장착해 충분한

화물실 용량을 확보하는 등 기존 경유 경찰버스와 동등한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연말까지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2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내년 말까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한 뒤 2021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산업부, 환경부, 경찰청과 '경찰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경찰청은 내년까지 경찰 수소버스 실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2021년 이후 모든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노력하며, 산업부는 경찰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한 개발과 실증, 생산을 지원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경찰 수소버스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보급과 연계 지원을 담당하고 현대차는 경찰수소버스의 개발과 실증, 생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경찰버스 802대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경유 경찰버스가 순차적으로 무공해 수소전기버스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가 경찰청에 공급한 저상형 경찰 수소전기버스와 기존 경유 경찰버스도 함께 전시돼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 29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전기버스는 2022년까지 2000대, 2030년까지 2만대, 2040년까지 4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전기버스 중점 보급 지역을 위주로 수소전기버스 차고지에 2022년까지 최소 60기의 버스전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20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도 구축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모바일 한계 넘은 V4... 박용현 노하우 집대성

(넷게임즈 대표)

"MMORPG 특유 문법에 콘텐츠 더해"
준비된 25개 서버 하루만에 마감

"V4는 넷게임즈의 오랜 공이 담긴 결실이자 지금까지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가치를 공유해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개발진의 응답입니다."

엔씨소프트 출신으로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2', '테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했던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가 출시 일주일을 앞둔 야심작 'V4'에 대해 정의할 말이다. 그는 "V4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MMORPG 특유의 문법에 '인터 서버', '커맨더 모드' 등 콘텐츠로 새로움을 더한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에는 넷게임즈를 창업해 모바일 게임 '히트', '오버히트'를 성공시키며 넥슨과 손을 잡았다. PC와 모바일이라는 두 플랫폼을 모두 잡은 셈이다.

박용현 대표의 MMORPG 노하우가 집약된 V4의 초반 이용자 반응은 순조롭다. 지난 10일 시작된 V4 서버 선점 이벤트는 초기 준비된 25개 서버가 하루 만에 동났다. 추가로 연 20개 서버도 15일 마감됐다. V4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원테크 플레이 영상'은 국내 게임 영상 중 최단 기간 조회수 1000만을 기록했다.

V4는 내달 7일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양대 마켓에 출시된다. 이후 글로벌 지역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V4, '인터 서버 월드' 커맨더 모드로 차별화...방대한 필드도 '눈길'

V4의 특징은 '인터 서버'다. 다섯 개



브이포(V4) 대표 이미지.

/넥슨

의 서버를 한 곳에 묶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언제든 후퇴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받는다. 밀고 당기기가 가능해진 셈이다. 서버마다 '실루나스(고유 서버)'와 '투나트라(인터서버)'라는 두 개의 권역이 존재한다.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여러 서버를 오갈 수 있다.

대규모 전투 지휘가 가능한 '커맨더 모드'도 특징이다. V4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UX)을 갖춘 커맨더 모드를 구현했다. 이 모드에서 길드장은 전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길드원 투입, 스킬 사용 등에서 전략적인 전투 지휘가 가능해졌다.

게임 내에는 자율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캐릭터 성장과 자산 가치에 따른 경쟁 구조가 구성되는 MMORPG의 특성을 살렸다. V4는 가격 제한이 없는 거래소를 운영한다. 이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은 스스로 가치를 매기고 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과 같이 방대한 필드를 구현했다. 라베나 섬, 트랑제 숲, 오든 평

야, 델라노르 숲, 유카비 사막, 데커스 화산 등 실제 숲과 사막 등 풍경 구현했다.

넷게임즈 손면석 PD는 "넷게임즈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 기법을 V4에 구현했다"며 "V4를 통해 기존 모바일 환경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게임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V4 클래스는 ▲ 블레이드 ▲ 나이트 ▲ 건슬링어 ▲ 매지션 ▲ 워로드 ▲ 액슬러 등 총 여섯 개다. 모든 클래스는 '딜러' 기반의 공격적인 전투를 구사한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데빌체인더' 모드로 변신할 수 있다. 각각 주무기와 보조무기, 독립적 전투 매커니즘을 갖췄다.

◆넥슨, '게임'으로 승부수...원테크 플레이 영상도 공개

넥슨은 출시를 앞두고 사전 게임 정보를 공개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게임 화면을 촬영한 '원테크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고, MMORPG 주요 이용자 70여명과 인플루언서 30명을 초청한 행사도 열었다. /김나인 기자

르노삼성-LG화학,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협력

르노삼성자동차 LG화학과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은 우선 전기차 SM3 Z.E. 폐배터리 40대를 LG화학에 제공하고, LG화학은 제공받은 폐배터리를 새로운 ESS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전기차 폐배터리에 최적화된 ESS를 2021년까지 구축 및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은 SM3 Z.E.를 비롯해 향후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 및 이후 출시 예정인 전기차의 폐배터리도 이번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다양



르노삼성 SM3 Z.E. 전기차 배터리 교체 모습.

한 가혹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또 폐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할 경우 기존 전기차 고객의 배터리 교체 비용 절감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롤러코스터 탄 바이오株, 공매도 과일종목 수두룩

최근 한달 공매도 과일 68곳 중 24곳 35.3% 제약·바이오 종목
삼바 시총 5조, 셀트리온 6조 ↑
시총 9위, 7위서 3위자리 위협
“임상 회생 분위기에 추가 반등”
vs “주가 급변… 투자 신중해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제약 벤처기업에서 연구원이 제품 개발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갖 약재 속에 바이오주가 한차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도전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가도 이를 반영하듯 급등락세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임상 실패와 기업의 제품 품질 이슈에 대한 경각심이 사그라든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신약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해졌다는 얘기도.

◆롤러코스터 바이오주, 다시 열풍?

바이오주 분위기가 심상찮다. 31일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공매도 과일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68개 중 24개가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조사됐다. 전체 과일종목 중 35.3%를 차지할 정도다.

특히 공매도 과일 종목에 이번 달에 만3번 이름을 올린 에이치엘비는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바이오주가 잠식했다. 지난달 말 각각 코스피 시가총액 9위와 7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한 달 만에 시총이 각각 5조원, 6조원씩 늘어나며 3위 자리를 위협중이다.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은 31일 “임상 시험은 회사 가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이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부 업체들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바이오주 전체가 강하게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 업체들이 실패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가 회생하는 듯한 분위기로 반전됐다”며 “실제로 학계에 좋은 평가를 받은 곳도 있고, 자체 판단이긴 하지만 성공했다고 마케팅을 하는 곳도 있어 추가 반등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오주의 투기성 매매를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 바 있다.

이해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부정적 이벤트가 있었던 대형 바이오 기업의 파이프라인 가치와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바이오 기업은 파이프라인 차별화에 따라 개별 기업 투자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종우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은 “바이오주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며 “소문이나 막연한 기대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임상데이터 발표나 신약후보물질 발굴, 큰 규모의 계약금이 들어온 기술수출 등이 검증된 결과가 있는 주식만 의미 있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예비 상장 기업 관심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의 상장심사청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빠르면 연내에도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브릿

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성장성 특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사능의약품 전문기업 듀켄바이오, 당뇨병치료제 개발사업타머사이언스,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신약 개발업체 신테카바이오 등의 상장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상장기업의 긍정적인 기류가 예비 상장사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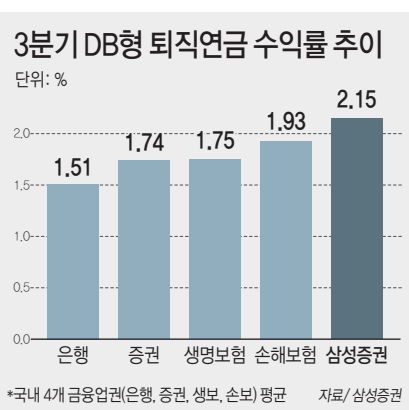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은 “예비 상장기업 역시 시장에 입성할 때 공모가를 좋게 받길 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에이치엘비를 필두로 바이오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올해 상장 계획이 없었던 업체들도 분위기가 개선됐을 때 입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의료수요가 높은 신약을 타깃으로 초기개발과 기술이전을 했다”면서 “수익 창출도 빠르고 실패 가능성도 적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metroseoul.co.kr

삼성증권,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3분기 연속 1위

수익률 꾸준히 2% 이상 유지
‘ALM컨설팅’ 운용, 성과 비결



삼성증권이 3분기까지 집계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운용 결과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운용의 강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국내 4개 금융업권(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올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부문에서 3분기 연속 ‘직전 1년간 수익률’ 증권업계 1위를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올해 3개 분기 연속 DB형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에서 우

준히 2%가 넘는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2.13%, 2.15%의 수익률로 전체 금융권 DB형 퇴직연금 사업자 41곳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DB형 퇴직연금 직전 1년 수

익률을 2%대의 수익률을 기록한 증권사는 국내에선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삼성증권은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이 양호한 수익률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1~3분기 동안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은 직전 1년 수익률 평균이 4.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증권업계의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직전 1년 평균 수익률인 1.17%는 물론 은행의 평균 수익률인 0.55%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우수한 운용 성과 비결로는 DB형 퇴직연금 운용 전략인 자산부채종합관리(ALM)컨설팅이 꼽혔다. 자산부채 종합관리 컨설팅이란 법인고객의 퇴직부채 적립비율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편입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맞춤형 운용 솔루션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 3분기 자산부채종합관리 컨설팅으로 안정성이 높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서 “이에 따라 안정적인면서도 우수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3분기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 증권사 5개사, 손해보험사 3개사, 생명보험사 2개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으며 은행은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에 오르지 못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NH투자증권 오늘 투자 토크콘서트

NH투자증권은 ‘가치투자에 신중국 투자를 더하라!’를 주제로 11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4층 NH아트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NH투자증권 청담 자산관리(WM)센터와 글로벌주식부가 주최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 1부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주요 지표 및 투자전략’으로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김형래 연구원이 설명할 예정이다. /손엄지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3.53대 1... 4년만에 청약 경쟁률 최고

대림산업이 경남 거제시 고현동 1102 일대에 선보인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가 1순위 청약에서 거제 지역 4년만의 기록을 세웠다.

3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된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988가구 모집에 총 1803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지난 2015년 5월 ‘거제 2차 아이파크 2단지’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통장을 불러모은 것.

2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에 제한이 없는 만큼 거제뿐 아니라 광역 수요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1순위 최고 경쟁률은 90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에서 318건이 접수돼 3.53대 1을 기록한 전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 있다. /대림산업

용 98㎡ 타입에서 나왔다. 또한 84㎡A 타입(2.13대 1)과 84㎡B 타입(1.15대 1)도 해당 지역에서 모집세대 이상의 통장을 끌어모았다. 주택전시관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84㎡C 타입 등은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분양가는 3.3㎡당 최소 850만원, 평균 1030만원선에 책정됐다. /이규성 기자 peace@

부장님 대신 ‘책임매니저’... 호칭 간소화

현대차증권, 오늘부터 체계 개편

현대차증권은 11월 1일부터 직급 및 호칭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새 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인사설명회 등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됐으며,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기업문화 혁신활동의 일환이다. 우선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직급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6단계의 직급체계에서 차장과 부장을 통합해 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또 수평적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호칭도 사원에서 대리까지는 ‘매니저’, 과장부터 부장까지는 ‘책임매니저’로 간소화한다. 다만 팀장, 실장 등 보직

자는 기존처럼 직책을 호칭으로 사용키로 했다. 특히 과장 이상의 책임매니저는 누구나 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개편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현대차,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지난 9월부터 이 같은 호칭을 도입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들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인사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증권은 내달부터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역할 및 능력 중심의 새 인사제도를 통해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한화투자증권

‘내아이 첫 돈공부’ 출간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을 알면 돈이 보인다’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세뱃돈부터 시작하는 내아이 첫 돈공부’를 출간했다. 이 시리즈는 한화투자증권 공식 블로그 ‘라이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콘텐츠를 엄선한 전자책으로, 국내 최대 월정액 서비스인 밀리의서재에서만 단독 선공개 한다. /손엄지 기자



‘지스타’ 개막 임박... 축제 빛낼 미공개 신작 ‘와르르’

부산 벡스코서 14~17일 나흘간 넷마블 ‘세븐나이츠’ 등 2종 공개 펠어비스 단일 최대규모부스 운영 ‘5G 게임스트리밍’ LGU+도 참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9’가 보름도 채 안 남았다. 11월 14~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9에서는 내년 출시될 미공개 신작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올해 게임대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10월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게임사 3사 중 유일하게 지스타 자리를 지키는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제2의 나라’ 등 미공개 신작 2종을 지스타에서 공개한다. 이와 함께 ‘A3: 스틸 얼라이브’와 ‘매직: 마나스트라이크’ 등 2종의 대형 지식재산권(IP) 게임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열린 ‘지스타 2018’에서 ‘아프리카TV BJ 열망전 시즌5’ 경기를 보기 위해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부스에 모인 관람객 모습. /카카오게임즈

최초로 선보이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 게임인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이

게임은 세븐나이츠 영웅들이 사라진 이후 혼돈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사관 이야기다.

제2의 나라는 동화풍 애니메이션 감

성이 특징이다. 모험과 여정의 스토리에 카툰렌더링 방식의 3D 그래픽을 접목했다. ‘킹덤’이라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와 협력해 길드를 발전시키는 ‘소셜 시스템’이 강점이다.

넷마블관은 100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모바일 시연이 용이하도록 250여대의 시연대를 마련했다. 현장 소식은 넷마블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다.

넥슨의 빈 자리는 펠어비스가 채운다. 펠어비스는 단일 업체로는 최대 규모인 200부스로 지스타에 참가한다. 펠어비스는 액션 배틀 로얄 ‘새도우 아레나’를 비롯해 프로젝트 K, 프로젝트 V, 프로젝트 CD 신작을 선보인다.

지난해 지스타에서 새로운 연합의 브랜드를 공개한 크래프톤은 B2C 전시관에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관련, ‘배틀그라운드 헤리티지’를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 게임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인 LG유플러스도 지스타에 참가할 예정이다. 해외 기업으로는 메인 스폰서인 슈퍼셀을 비롯해 구글코리아, 유튜브 등 기업이 참가한다. 슈퍼셀은 지스타 개막 전날인 13일 ‘브롤스타즈 전야제’를 열고 슈퍼셀 부스를 소개한다.

올해 최고의 게임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도 지스타의 관전 포인트다.

올해 후보로는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넥슨 ‘트라하’, 카카오게임즈의 ‘달빛조각사’, 넷마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등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로스트아크와 트라하가 쟁쟁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게임대상에서는 펠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이 선정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신한금융그룹, ‘신한 따뜻한 장터’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10월3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사 결연마을과 함께하는 ‘신한 따뜻한 장터’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특산물 판매와 함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참석해 소외계층에 식생활 개선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구매해 서울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왼쪽)과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정연보 회장이 후원물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지난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의 사내벤처인 ‘포벤처스’ 1기 12개 팀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사내벤처 ‘포벤처스’ 1기 출범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 도모

포스코가 포스코그룹의 사내벤처인 ‘포벤처스’ 1기 12개팀을 출범시켰다. 포스코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사내벤처 제도 ‘포벤처스’를 도입하고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템 공모를 실시했다. 포스코뿐 아니라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포스코에너지 등 그룹사에서 72개 아이팀을 접수했으며,

심의 단계를 거쳐 최종 12개 사내벤처팀을 선발했다.

포스코센터에서 30일 개최한 출범식에는 포스코 오규석 신성장 부문장,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주요 그룹사 임원과 사내벤처 12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선발된 사내벤처팀은 최대 1년간의 인큐베이팅을 거친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창업 여부가 결정된다.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에는 사무공간과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황각규 롯데 부회장 “위기감 갖고 미래 대비”

임직원 경영 간담회
주 계열사 비상경영 체제 전환 요청
외환·유동성 위기에 철저 대응 강조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그룹 내 모든 계열사에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외환 및 유동성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강조했다.

롯데는 지난 30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지주 및 계열사 대표이사과 주요 임원 약 150명이 참석한 경영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의 경영 환경 및 관련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이날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간담회 본 세션이 시작되기 앞서, 참석한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국내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각 사 모두 위기감을 갖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고 철저히 대비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황각규 부회장은 우선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황 부회장은 “투자의 적절성을 철저히 분석해 집행하고, 예산관리를 강화해 임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외환 및 유동성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 잡힌 경영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황 부회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장밋빛 계획이나 회사 내외부의 환경만 의식한 보수적인 계획 수립은 지양해달라”고 지적하고, “명확하고 도전적

인 목표를 수립하고 혁신을 통해 이를 반드시 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기간별로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 탄력적 경영을 해달라”고 전했다.

황 부회장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강화”도 강조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보다 근본적인 전략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부회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거의 성공방식은 오히려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IT 및 브랜드 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황 부회장은 대표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격려했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9월 생산·소비 줄고 설비투자 늘어

9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108.0으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광공업 생산은 7월 2.8% 증가했다가 8월 1.8% 감소하고 지난달 다시 2.0% 늘어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특히 반도체조립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 생산이 늘면서 기계장비 생산이 8.0% 증가했고, 신차 출시와 맞물려 자동차 생산도 5.1%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1.2%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2.

2%포인트 상승한 75.6%로, 2017년 1월(76.2%) 이후 가장 높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각각 2.9%, 1.8%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2% 감소했다.

9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58.7로, 전월보다 상승하며 기준치인 50을 웃돌았다. 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도 55.4로, 전월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했다.

생산확산지수가 기준치를 웃돌았다는 것은 전월보다 증가한 업종의 수가 감소한 업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계열)는 전월보다 2.2% 줄어든 113.0으로 집계됐다. 감소 폭은 2017년 12월(-2.4%) 이후 가장 컸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8월에 음식료품을 선구매한 기저효과로 비내구

재 소매판매가 2.5% 감소했다. 연이은 태풍 등 날씨 요인으로 환절기 의류 판매가 줄면서 준내구재 판매도 3.6%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슈퍼마켓·잡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1년 전보다 각각 5.2%, 4.5% 줄었다. 백화점에서도 2.6% 판매가 감소했다. 반면 면세점은 32.9% 증가했다.

통계청은 산업생산과 소비 동반감소가 기저효과와 날씨 등 일시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2.9% 증가했다.

2017~2018년 대규모 반도체 장비투자의 기저효과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국내 기계 수주는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한곳에 집결한 소상공인 “혁신과 단결로 생존사수”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5일까지 소상공인주간 지정
개인·단체 3개분야 유공자 포상
기능경진대회·우수제품 판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소상공인 대회가 열렸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맞춤형 복 소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 비엔테일러샵 박정열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미용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기술 개발 및 제품 수출 지원 등에 기여한 대한미용사회 최영희 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3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5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했다. 또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를 소상공인주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대회, 기능경진대회, 플리마켓 위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이날 대회장을 찾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들이 소상공인의 가치를 사고, 소상공인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며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주춧돌로서 자긍심을 가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3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치삼시다 TV' 오픈스튜디오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규환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 장관. /김승호 기자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소상공인 대회는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삼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유공자 시상식, 기능경진대회, ‘가치삼시다 TV’ 오픈스튜디오 방송, 우수제품 판매·체험관 및 스마트상점관 운영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우선 유공자 포상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우수지원단체 등 총 3개 부분에서 총 147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여기에는 훈장수훈 2명과 함께 산업포장 2명도 포함돼 있다.

브래드밀레 박상규 대표는 22년간 제과기술 발전에 힘을 쓰며 제과기능장 취득,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등 제과제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자동차클러버퍼공업협동조합 권순배 이사장은 기술력과 공급능력을 갖춘 부품 제조사를 육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외에도 밀알플라워 유현미 대표, 스킨블루 권혁환 대표, 문방사우 권희택 대표, 나드리 김정애 대표, 공산건설설비 김정식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또 우수지원단체 부문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창업 교육·컨설팅, 시설개선협업화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



3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미용인들이 기술을 뽐내고 있다.

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장 곳곳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 한가운데에 올해부터 중기부가 운영하는 ‘가치삼시다 TV’ 오픈스튜디오가 자리해 크리에이터 ‘강과장’과 ‘LeMi’, 개그맨 이동엽씨가 소상공인 우수제품 소개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했다.

체험관에는 인절미 메치기, 카페공방 체험, 인생사진 촬영, 할로윈 분장 등 업종별 특색을 살린 체험거리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또한, 30여개의 판매관을 설치해 소공인 제품과 백년가게 음식 등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선보였으며 온라인 시장 진출, 족부스캐너·스마트오더·스마트머리 등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성공모델 확산,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알리는 공간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선 아시아외식연합회·조리기능장협회 기능경진대회도 열려 조리경연, 베이커리경연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총 1500여명이 경연을 벌였다.

맞춤양복, 플로리스트, 선물포장, 피부미용, 이용사, 메이크업 경진대회에도 총 1600여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소상공인의 우수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원동력의 힘이 약해지면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비상등이 켜진 것도 사실이고, 내수경기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곤경에 처하다 못해 생존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의 혁신과 단결을 선도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우리 경제 정책과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소상공인의 계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왔던 소상공인들의 결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산(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술보증기금은 부산 문현동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재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왼쪽 네번째부터)정진우 중진공 이사, 백경호 기보 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OU

기업 재기, 컨설팅·자금지원 한번에

기보 지원대상 추천, 중진공 방안 제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기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부산 문현동 본사에서 중진공과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재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보가 재기지원기업을 컨설팅 우선지

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중진공이 자금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기 지원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컨설팅 대상 기업 선별 추천 ▲진로제시 컨설팅 등 각종 사업 지원 ▲구조개선전용자금 연계 지원 등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우수기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웅진 정수기·공기청정기 관리, 국내 최고인증

웅진코웨이

A/S분야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웅진코웨이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9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A/S부문 1위에 오르며 2관왕을 달성했다

고 31일 밝혔다.

웅진코웨이는 서비스 점검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위생 케어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A/S부문에서 각각 1위에 뽑혔다. /김승호 기자

“중소상공인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해야”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정책토론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성 주장
제도마련 등 접근방식 두고 시각차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O2O 등 온라인플랫폼들을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들이 타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이훈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기업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플랫폼의 종류	사업자명
오픈마켓 사업자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 쇼핑 등
소셜커머스 사업자	쿠팡, 티몬, 위메프 등
O2O 사업자	배달앱, 숙박앱, 세탁앱, 부동산중개업 등
종합쇼핑몰 사업자	롯데닷컴, 신세계몰 등
포털사이트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등
TV홈쇼핑 계열 사업자	GS샵, CJ물, 롯데홈쇼핑, H물, 홈앤쇼핑, NS물 등

/자료=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

김윤정 실장에 따르면 매출 1000억원이 넘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일 경우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1호의 가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실장은 “오픈마켓이나 O2O 사업자와 같이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사업방식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입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하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 가운데 지난해 10월 16일 신설된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규정을 확대 개정해 이들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법 테두리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운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이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선 대체로 공감했지만 제도마련 등 규제 접근방식 등에서 다소 시각차가 있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문상일 수석연구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지만 규제방식에 있어서 법률개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견해를 내놨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법 제정이 구현되지 못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조국사태 → 타다 기소... 與·檢 신경전은 '현재진행형'

타다, 승합차 예외조항 근거 영업 與, 검찰이 혁신성장 가로막아 정계 "檢개혁 신경전 타다로 옮겨"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모양새다. 검찰이 '타다(승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자 청와대·정부·여권관계자들이 잇따라 유감을 나타낸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유사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당혹

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날, AI(인공지능)분야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즉 여권은 검찰이 혁신성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김 실장에 한정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때 "타다에 대한 기소 문제가 앞으로 신산업 육성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검찰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며 "사법부가 판단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의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여권과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며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을 방증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과 검찰의 1차 무대였던 조 전 장관 사태가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로 일추 마무리되자 '타다 기소' 등으로 다시 번진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왜 한마디씩 하겠나"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회피'가 가장 큰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지난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웨라튼서울 팰라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참석해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우리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열린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와 장지로 이동하기 전 눈물을 닦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北 김정은·프란치스코 교황, 文에 조의문

靑 "金, 文 대통령에 위로 메시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각각 조의문을 보냈다.

우선 김 위원장의 조의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 조의문은 지난 3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 받았다. 또 그날 밤 늦은 시간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 조의문이다. 천주교 부산교구는 31일 "문 대통령 모친 강 여사 선종을 위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성하 위로 메시지가 주한교황청 대사관을 통해 천주교 부산교구청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부산교구청이 공개한 조의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저는 대통령님의 사랑하올 어머니 강 데레사 자매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다"며 "이 슬픈 시기에 영적으로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교황의 조의문은 조영만 세례자 요한 신부가 번역공증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31일 강 여사

장례미사 후 안장식에서 "어머니께선 평소 신앙대로, 또 원하시던 대로 많은 분들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됐다. 피난 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셔서 조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조의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도 했다.

한편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상가를 찾아 심심한 조의를 표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문 대통령 상가를 찾았다"며 "문 대통령도 아침 일찍 멀리까지 찾아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문 대통령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며 건강이 안 좋아 수술 후 재활치료중인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내지 형집행정지를 간곡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홍 대표 요청에 문 대통령은 "구치소내 책상 반입 및 병원 입원치료 등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미소로 화답했다. /우승준 기자

객관·투명성 살려 vs 학교 교육 파행우려

법조계 '정시 확대' 찬반공방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공정성 확보위해 50% 확대해야"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쳐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법조계에서도 이어졌다. 객관적인 지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 위주 전형, 즉 공정한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위주 교육의 문제점이 불거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오후 서울역 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 입시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의 사회는 박경호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발표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토론에는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전 서울시 부교육감),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시 확대의 당위성을



대한변호사협회는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입시, 논문, 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현경 기자

강조했다. 먼저 강 교수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정시비율을 50%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시와 정시 비율을 현행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이 수시제도의 과점상의 의혹을 줄이고 정시의 객관성과 투명성의 장점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생부에 고교명 삭제 ▲3불 금지 원칙 준수 ▲특목고·자사고·외고 전형구분 ▲학생부에서 비교과 활동 축소 등을 제시했다.

반면,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전 서울시 부교육감)는 정시 확대가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으로는 신입생 층원이 어려운 지역대학이 입학자원의 급속한 감소로 늘어나

고 있는데 정시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모든대학에 주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위주로 학생을 뽑던 과거에도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재수생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빚발쳤었다"며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시를 일정비율(예, 50%) 이상 되도록 대학에 권장하려면 제 31조에 명문화해야 한다. 즉 조항을 신설해서 '일반전형에서 제 3항에 의한 시험 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을 100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내년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현안점검조정회의서 과제 33건 논의

내년 4월부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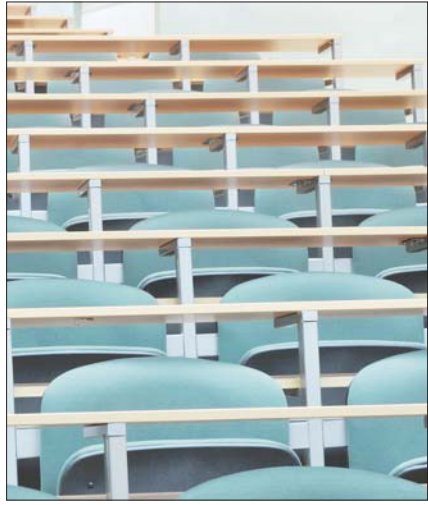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날 연 국무총리 주제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줄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

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강사 잡는 강사법’… 법 시행 첫 학기 강좌 6천여개 감소

전체 강좌 작년비 1.3%p 줄어
사립, 수도권 대학 감소폭 커
전임교수 강의 부담 증가



유투이미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좌 약 6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와 반대로 강사 일자리가 줄면서, 대학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6개 대학의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감소했다.

전체 강좌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 비율은 2017~2018년에도 1.9%포

(11.2%→11.6%)과 31명~50명 강좌 비율(26.3%→26.4%) 등 대형 강좌 비율은 늘었다.

수강 학생이 많은 대형 강좌는 학생 1인당 비용이 적게 들지만, 교수와 학생의 접촉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 교육의 효과는 소형 강좌보다 낮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대형강좌는 보통 유명 인사나 외부 스타강사를 초빙해 이뤄진다.

반대로 소규모 강좌는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교수와 학생간 소통 가능성이 높아 교육 효과는 대형강좌와 비교해 크다. 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인포스테이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소형 강좌를 운영한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대학들이 강사를 대규모 감축하면서, 소형 강좌부터 감소해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 역시 대폭 줄었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감소했다. 대학 강좌가 한 강좌당 2~3학점인 점을 고려하면, 비전임교원의 일자리가 1년 만에 약 8600개 사라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상당폭 늘어났다. 올해 2학기에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어 전임교원 강의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내년 2월경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 강의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대학 재정 지원사업 등에서 강의 규모와 수 등을

연계해 반영할 계획이지만 그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속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임교원 확보를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강좌 수나 형태 등까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줄 경우 재정 여력이 낮은 소규모, 지방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순천향대 나눔교육 성과 나눈 ‘사색 페스티벌’

순천향대의 상징적 교육 문화축제
전문가 초빙 멘토링, 1년 활동 전시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30일 ‘2019 순천향 나눔교육 사색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순천향대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30일 오전 10시 교내 향설1 생활관과 SRC 문화광장 일대에서 제5회 ‘2019 순천향 나눔교육 사색(四色·思索)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나눔교육 사색(四色) 페스티벌은 순천향대의 대표적인 교육브랜드인 나눔교육의 성과와 실체를 ▲SRC나눔페스티벌 ▲나눔문화 페스티벌 ▲메이커 페어 페스티벌 ▲핵심역량 페스티벌 등 4가지 테마로 선보이는 장이다.

순천향대는 이 행사를 지난 1년간 학생들의 성과 공유와 미래 나눔교육 비전을 모색하는 등 대학의 상징적인 교육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 ▲‘SRC 나눔 페스티벌’은 중국학과 등 17개 학과 멘토링팀을 비롯한 웨어링 등 25개 동아리의 ASP 홍보, 체험, 전시, SRC인생사진관, 버스킹 특별

공연 ▲‘나눔문화 페스티벌’은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적정기술 나눔실천 프로젝트, 순천향 리빙랩 프로젝트 홍보, 컬러테라피, 미니건강체크 등이 열렸다.

또한 ▲‘메이커페어 페스티벌’은 전문가 초빙 메이킹클래스와 다면적졸업인증제 설명, 페이스스캐너, VR체험, 3D작품 전시 ▲‘핵심역량 페스티벌’은 학습프로그램 우수사례 전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풀기, e-학습 포트폴리오 안

내, S.C복수전공 홍보, VR면접 체험 등 1년간의 활동 결과를 전시했다.

전문가 초빙 멘토링도 관심을 끌었다. 이날 제과제빵 전문가, 댄스전문가, 공연전문가 초빙체험 멘토링이 각각 진행됐다.

아울러 SRC 문화광장 상설무대인 야외공연장에서는 밴드, 기타, 클래식 등 각 공연 동아리별로 준비한 멋진 공연과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손현경 기자 son89@

단국대 72년 역사 담은 ‘단국역사관’ 개관

개교 72주년을 맞는 단국대가 대학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단국역사관’을 1일 개관한다고 31일 밝혔다.

단국역사관은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후 최근 완공했으며 지상 6층 규모(연면적 5432㎡)로 ▲대학역사관 ▲컨벤션홀 ▲MOU실 ▲대학유물 수장고 ▲행정사무실 및 회의실 ▲주차장 등을 갖췄다.

건물 2층에 들어선 대학역사관은 해방 후 설립된 대학 중 최초의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교(1947년)했던 당시부터 서울 한남동캠퍼스 → 천안캠퍼스 개교 → 죽전캠퍼스 이전에 이르는 72



단국역사관 /단국대

성상의 시간을 압축해 사료중심의 전시 공간으로 문을 연다. 전시공간은 4개 섹션으로 구성돼 이미지나 영상보다는 문서, 사진, 유물 등 철저히 사료 중심으로 실제 역사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한용수 기자 hys@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재일코리안 영화제’

동국대 일본학연구소가 오는 11월8일과 9일 양일간 동국대 문화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일코리안 영화제_일본영화 속 재일코리안을 다시 본다’를 개최한다.

영화제는 ‘돌아온 주정뱅이’, ‘교사형’, ‘박치기!’,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등 4편의 영화 상영과 2편의 대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시마 나기사(大島渚)의 1968년 영화 ‘돌아온 주정뱅이’와 ‘교사형’, 그리고 1968년을 배경으로 제작된 이즈쓰 가즈유키(井筒和幸)의 ‘박치기!’(2004)는 1968년과 관련된다. 베트남 전쟁 반대와 일본의 자유, 민주, 독립의 목소리가 생생한 1968년 일본에 김희로 사건으로 대표되는 타자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었다.

/한용수 기자

윤선생 ‘초통영’ 기간 한정 할인행사… 최대 37%

오늘부터 12일간 ‘빅스마일데이’



윤선생 초통영 학습 모습 /윤선생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자사 영어학습 상품 ‘초통영’이 이베이코리아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11월1일~12일까지 G마켓·옥션에서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윤선생 초통영은 ‘초등학교에서 통하는 영어’의 줄임말로, 예비초등·초등 저학년 학습자를 위한 기초 초등영어 학습상품이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갖는 공통적인 니즈를 반영해 파닉스, 말하기, 읽기 등 초등영어 대비에 맞춰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사 기간 동안 기본 할인에 G마켓과 옥션 고객에게 발급되는 15%~20% 할인쿠폰을 더해 최대 37% 할인된 가격과 함께 학습기간 2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한국현대도예가회 이사장에 김시만 성신여대 교수 내정

성신여대공예과 김시만 교수(사진)가 한국현대도예가회 제8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까지 12월까지 2년이다.

사단법인 한국현대도예가회는 1978년 창립돼, 주로 대학 교강사 및 전업작가들로 구성되어 4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예단체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 해외석학 특강

세종대학교는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센터장 최수미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최근 세종대 광개토태양관에서 해외 석학 마르쿠스 그로스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 및 전시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ICT연구센터(ITRC) 사업으로 개발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기술’ 전시를 참관하고, 국제공동연구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의 전시를 시작으로 최수미 센터장의 환영사, 알렉산드라 아피첼라 주한 스위스 대사관 과학기술협력실장의 축사, 마르쿠스 그로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교수의 특별강연, 감사패 수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그로스 교수의 강연에는 세종대 대학생과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용수 기자

www.pdna.co.kr

더 완벽해진 피디엔에이
동안피부를 위한
연어DNA 3배 강화*
P+DNA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청정 연어에서 추출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바꿔줍니다.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청정 연어 DNA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스킨피밍 프랑스 세더마틴 보르필린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발효 겨우살이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결	발효 띠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톤업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현대모비스, 정규 양궁교육 스타트 현대모비스는 올해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한 어린이 20명을 1기 '주니어 양궁 꿈나무'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친 전문 양궁 수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주니어 양궁 교실'의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정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직 국가대표 출신의 주현정 선수가 주니어 양궁 꿈나무교실 참가 학생들에게 양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롯데백화점, 파트너사와 1박2일 '힐링캠프' 롯데백화점이 11월 6, 7일 이틀 동안 롯데 속초 리조트에서 중소 파트너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19 파트너사 힐링캠프'를 진행한다. 6년째를 맞은 '2019 파트너사 힐링캠프'는 2014년에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 실제로 지난 해에는 상품군의 구분 없이 모든 파트너사가 한 차례 모여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240여개의 파트너사를 상품군별로 나누어 롯데백화점 바이어와 매칭을 했고 11월 말까지 총 세 차례로 운영한다. /롯데쇼핑

CJ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대상' 부문 대상

CJ제일제당이 지난 30일 서울 흥동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GSMA)'에서 '지속가능경영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농가,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친환경 발효 공법 등을 활용해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발굴 및 지속가능경영을 이룩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인용 기자



지난 30일 진행된 '2019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정길근 CJ제일제당 부사장(왼쪽)이 '지속가능경영대상' 대상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KT&G '제10회 상상실현 콘테스트' 접수

3·1운동, 임정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희망 메시지 전달

KT&G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10회 상상실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대한민국, 위대한 상상을 잇다'를 주제로 독립의 역사와

의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작품이 공모 대상이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12월 1일까지 참가자 개인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제작한 작품을 게시하고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작품 URL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CJ CGV, 자원봉사 부문 서울시장상 수상 CJ CGV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CJ CGV는 자원봉사 부문 서울시장상을 수상하며 임직원들이 펼쳐온 나눔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성진 CJ CGV 전략지원담당(왼쪽)이 2019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에서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시장상을 수상하고 있다. /CJ CGV



강형문의 세상읽기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DLS사태(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원금손실 발생)'로 금융인의 윤리의식 강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은 신용을 전제로 성립한다. 금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순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활동에 관여하는 당사자 간의 신용이 높아야 한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고객 스스로 신용을 중시하고 또 금융회사도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금융은 신뢰라는 윤리의 덕목이 가장 중요시되는 분야이다. 이번 금융권에서 발생한 DLS사태는 아무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식의 습득을 실천에 옮기는 의식의 변화 없이는 윤리의식부재로 인한 금융사고(윤리적 리스크)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회사의 윤리의식 부재로부터 야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

금융인의 윤리

춰 금융윤리규범을 제정(2015년)하고 금융업권별로 윤리헌장과 표준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내부경영에 반영, 실천토록 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3대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은행권에서의 대출금리 조작사건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번번히 일어났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금융사고가 제도나 법제두리내에서 이뤄지는 비윤리적 행위(예측·관리·통제가 쉽지 않음)가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제도개선과 금융감독 강화만으로 금융인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금융혁신(디지털금융의 확산)의 지속으로 금융업무는 보다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져 금융회사내에서의 윤리적 리스크(회사이익을 위한 비윤리적행위를 묵인하는 풍토 등)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래에 보편화될 AI시대(인공지능시대)에서 만약 AI기술을 악용(그릇된 가치관을 AI에 반영) 한다면 이는 금융의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시킬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AI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금융권에서 발생한 DLS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이 조만간(11월 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고위험금융상품의 은행판매제한, 투자숙려제도 등)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급속히 진화하는 금융업무의 특수성과 미래 보편화될 AI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 윤리교육이 습득된 지식을 통해 태도와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대형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인 윤리자격증 제도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동 제도는 은행원을 대상으로 금융윤리교육을 실시(스코틀랜드금융연수원이 주관)하고 교육이수 후 평가(매일 매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업무태도, 가치관, 행동양식, 전문소양)를 통해 개별은행과 은행원에게 윤리규범 인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로서 동 자격을 보유한 자(2015년말 현재 약 7만 여명)는 은행산업에서 필요한 세부 전문지식과 윤리성을 겸비한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금융산업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 행동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금융인들에게 윤리란 추상적인 도덕이 아닌 꼭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끊임없는 반복적 교육과 감독을 하는 새로운 윤리교육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전문위원

맨손으로 난동제압 20대 청년들에 'LG의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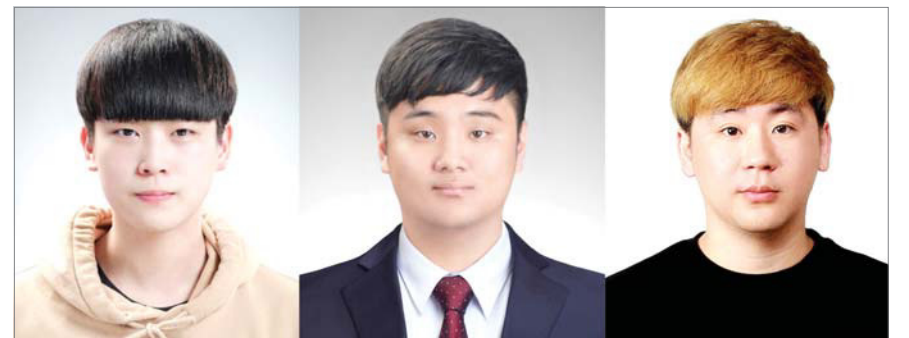
진중현·변정우·정규철 씨 3명

맨손으로 흉기난동범을 제압한 청년들이 LG 의인상을 받게 됐다.

LG복지재단은 10월 31일 진중현 씨와 변정우 씨, 정규철 씨 등 20대 청년 3명을 새로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진 씨와 변 씨는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에서 휴대전화 매장 직원을 칼로 찌른 50대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다친 직원에 응급조치로 병행해 생명을 구해내기도 했다.

정 씨도 22일 서울 봉천동 한 PC방에



LG의인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변정우 씨, 진중현 씨, 정규철 씨. /LG

서흥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는 범인을 몸싸움 끝에 제압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치지 않았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큰 부상을 입

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맨손으로 흉기에 맞선 청년들의 의로운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인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임호근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 현수업

◆**한국관광공사** △전보 및 보직 변경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 김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과장급 임용 △예금사업단 예금위험관리과장 오창수

◆**특허청** (전보)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이현구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최규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권오희 △기계계측기술심사국장 류동현

◆**충주시** (전보) △5급 △시설관리공단(파

견) 김진수 △상수도과장 이광우 △양성면장 정지용 △6급(팀장) △신성상전략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조용범 △관광과 온천관광개발팀장 유현진 △상수도과 수도시설팀장 민경상 △" 수도요금팀장 원종순 △" 수도관리팀장 이상하 △" 정수팀장 최승희 △" 시험팀장 김충래 △하수와 수안보팀장 이종욱 △살미면 개발팀장 장용선 △동량면 개발팀장 이준희 △염전면 주민복지팀장 신현욱 △소태면 개발팀장 이경우

◆**안동시** (전보) △4급 △의회사무국장 임중환

◆**한국전문연구원** △감사부장 신용태 △행정부장 윤영재 △이론전문센터장 조정연

◆**한국금융연구원** △보직발령 △가계부채

연구센터장 임진

부음

▲정의한씨 별세·김준일 소영 모친상·박정원(두산그룹 회장) 빙모상=10월 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40분. 02-3010-2631

▲정보 별세, 박정순씨 남편상, 정경희(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상태씨(LG전자 칠러파트장) 부친상, 이경수씨(심택홀딩스 전무)장인상, 문완숙·박사랑씨(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시부상=31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2일 9시. 02-3010-2231

“삼겹살 지켜주세요... 소비심리 회복돼야”

한돈자조금, 국산 돼지고기 소비 호소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체무해
집돼지 보다 멧돼지 방역을”



3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돈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돼지 흑사병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해주세요.” “정부는 집돼지보다 멧돼지에 모든 방역 정책을 쏟아야 합니다.”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한돈농가 응원 캠페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돈 소비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돈 농가들은 ASF 발병 후 돼지고기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돈소비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ASF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초로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9월 16일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염성

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ASF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지속해서 알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한돈 농가는 돼지 1마리 당 약 15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파산하는 농가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1~30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탕박, 등외제외)은 kg당 315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9.3%, 평년보다 20.5% 낮은 수준이다. 지난 9월 경기도 연천을 마지막으로 양돈농가에서는 ASF이 발견되지 않은 지 3주가 지났음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돈 농가들이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10월 소비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보다 돼

지고기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이 45.4%(239명)로 나타났다. 반면 늘렸다는 응답은 4.9%(26명)에 불과해 2019년 10월 돼지고기 소비는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소비를 줄인 이유로는 ‘돼지고기 안전성이 의심되어’가 70.3%에 달했다.

한우자조금은 11월 1일까지 한돈 직거래장터를 열어 삼겹살, 목심 등 인기 부위를 포함한 다양한 부위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 대상 한돈 안전, 안심 홍보캠페인도 함께 연다. 또한 11월 3일까지는 중구 남산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제 4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에 참여해 한돈 무료 시식회, 경품 이벤트를 통한 한돈 안전성 알리기에 나선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방역 조치로 발령된 권역별 이동제한의 해제 등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위원장은 “SOP(긴급행동지침)에 벗어나는 방역 및 살처분, 수매는 하지 말라는 것이 농가의 뜻”이라며 “정부는 집돼지보다는 멧돼지에 모든 방역 정책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독일 쾰른에서 열린 아누가2019에서 시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유럽 공략 4회 런던 아시아영화제서 ‘진로소주 시음행사’ 진행

하이트진로가 유럽 시장에서 한국 소주 알리기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 런던, 독일 쾰른 등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 4회 런던아시아영화제(LEAFF)’에서 한국 소주 알리기에 나섰다 3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런던아시아영화제와 처음으로 주류 파트너십을 맺고 영화제 오픈링 작품 상영 전 리셉션 자리에서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로(JINRO) 소주 시음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유럽 영화제에서는 와인, 샴페인사와 협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시아영화제인만큼 아시아 대표 소주인 진로 소주가 오픈링 자리를 빛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인용 기자



“땅 파서 장사”... 홈플러스, 대대적 할인행사

홈플러스, 업선 200종 대표상품
‘블랙버스터 스페셜 패키지’ 선봬

빅딜가격·득템찬스1+1 등 프로모션
삼성·LG전자 등 가전 할인대전도



홈플러스 블랙버스터 스페셜 패키지 /홈플러스

“4주간 땅 파서 장사하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연말을 맞아 11월 27일까지 4주간 전국 점포 및 온라인몰에서 대규모 ‘블랙버스터’ 할인행사를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업규제와 경기침체, 온라인쇼핑 성장 등 사방이 가로막힌 듯한 환경 속에서 유통업체들은 뼈를 깎는 원가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대적인 초저가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블랙버스터’ 행사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연중 최대 규모 소비가 시작되는 11월에 맞춰 신선식품부터 가

서 업선한 200여 종의 대표상품을 ‘블랙버스터 스페셜 패키지’ 상품으로 선보이는 한편, 매주 인기상품을 대규모 사전 물량계약으로 초특가에 파는 ‘빅딜가격’, 300여 종 핵심 생필품을 반값 수준에 내놓는 ‘득템찬스1+1’, 코리아세일 페스타 ‘가전 할인대전’, 쇼핑몰과 온라인몰 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우선, 품질과 가격 모든 측면에서 업선한 상품 200여 종을 ‘블랙버스터 스페셜 패키지’로 제작해 4주 내내 저렴하게 선보인다. 매장 곳곳에서 ‘블랙버스터’ 아이콘이 붙은 상품을 찾으면 된다.

고당도 레드키위(9~18입/팩) 7990원, 애호박(2입) 1790원, 핫 찰현미(7kg) 1만9900원, 자반고등어(4마리) 5990원, 에콰도르 힌다리새우(30마리 내외) 9990원, 해태 고향만두(1kg)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리온-中 루이싱커피 고소미 등 제품 수출계약

오리온은 중국 최대 커피 체인인 ‘루이싱 커피’와 프리미엄 미네랄 워터 ‘오리온제주용암수(사진)’와 ‘고소미’ 등 자사 제품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오리온제주용암수는 제품 출시 전부터 제품력을 글로벌 기업에 인정 받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 오리온은 연내 오리온제주용암수를 국내에 출시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루이싱 커피에 530ml 제품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11번가, 매출 1405억 영업익 3억 달성

3분기째 영업손익 개선



11번가 주식회사
가수익성 중심 경영
으로 영업이익3분기
연속 달성에 성공했다.

31일 SK텔레콤의 영업실적 공시에 따르면, 11번가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405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으로 2019년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비효율적인 직매입 사업축소로 매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수익성 중심 경영 원칙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익을 194억원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2018년 3분기 영업손익 -191억 원 추정)

11번가는 업계 유일의 ‘커머스 포털’을 지향하며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쿠폰 중심의 가격 경쟁을 벗어나 고객에게 실리를 제공하는 SK페이포인트 혜택 강화에 나서는 등 재미, 정보, 참여로 고객의 쇼핑만족도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올해 ‘월간 십일절’의 성공과 타임딜의 인기, 11번가 단독상품 완판 사례 등 비용 대비 효율적인 판매 성과를 이뤘다.

/신원선 기자

“마음속 쇼핑리스트 내일 득템 기회”

신세계, 내일 ‘대한민국 쇼핑 축제’

‘한우 1등급 등심 4750원(100g·KB국민카드 결제 기준)’ ‘알찬란 1구 86원’ ‘80cm TV 9만9000원’ 11월 2일 썬데이를 맞아 이마트가 준비한 초특가 쇼핑리스트이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11월 2일 단 하루 18개 계열사의 온·오프라인 유통역량과 인프라를 총 동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쇼핑 축제를 펼친다.

앞서 지난 28일부터 사전행사를 시작한 ‘썬닷컴’의 행사 물량 규모는 총 5000억원어치에 달한다.

최대규모로 행사를 준비한 계열사는 이마트이다. 이마트는 ‘썬데이’를 맞아 단 하루 ‘1+1’ 행사와 각 품목별 주요 상품 최대 50% 할인 등을 펼친다. 썬데이 당일 물량 규모로만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전문점들을 모두 합쳐 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의 초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이마트 행사는 테마별 가격 혜택이 가득하다. 한우·G7 와인·계란·피자 등 가격이 행사상품을 비롯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전품목 최대 50% 할인, 신선상품 2개를 1개 값에 구매하는 ‘2개 구매시 1개 할인’, 점별 ‘오늘 단 하루 서프라이즈 특가’ 등이 주요 테마다.

/신원선 기자

유통단신

농심 ‘수미칩’

마라소스·체다치즈 2종

농심이 수미칩 마라소스와 체다치즈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수미칩 신제품은 양념과 오일을 버무린 액상소스를 점점이 뿌리는 방식으로 만들어 풍미를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농심은 새로운 수미칩의 맛으로 ‘마라’와 ‘체다치즈’를 선택했다. 최근 다양해진 시장의 수요와 해외 식문화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소비 트렌드에 따른 것이다.

/박인용 기자



한미약품 ‘오락솔’, 유럽서 희귀의약품 지정

(경구용 항암신약)



한미약품 본사.

“혈관육종 환자 고무적 결과 확인” 시판허가 과정지원, 비용공제 출시후 10년간 독점권 등 혜택

한미약품이 개발한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이 유럽에서 연조직육종 치료제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오락솔은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품(FDA)로부터 ‘혈관육종’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된데 이어 유럽에서도 지정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아테넥스는 30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의약품청(EMA)

의 긍정적 의견을 토대로 오락솔을 연조직육종(soft tissue sarcoma) 치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조직육종은 장기, 뼈, 피부를 제외한 지방,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관 등 몸의 각 기관을 연결하고 지지하며 감싸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발병률이 1만명 중 5명 미만인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위를 부여한다.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시판허가 과정 지원, 비용 공제, 출시 후 10년간 독점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오락솔은 2017년 12월 영국 보건당국(MHRA)으로부터 유

망 혁신 치료제로 지정되기도 했다.

루돌프 칸 아테넥스 CMO(Chief Medical Officer)는 “올해 초 오락솔 임상 연구 초기 결과에서 치료가 어려운 혈관육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반응 등 고무적 결과를 확인했다”며 “이 임상을 유럽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락솔은 주사용 항암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가 적용된 한미약품의 항암 혁신신약으로, 2011년 미국 아테넥스사에 라이선스 아웃됐다. 아테넥스는 최근 오락솔의 고무적인 글로벌 3상 1차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GSK, 영유아 5가 혼합백신 ‘인판릭스 아이피브이 힙’

GSK의 영유아 5가 혼합백신 인판릭스IPV/Hib(아이피브이 힙·사진)이 지난 10월 국



내에 출시됐다. 인판릭스IPV/Hib은 기존 인판릭스 4가백신(IPV)에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의한 질환 예방을 결합한 5가 혼합백신이다.

기존 인판릭스IPV와 Hib백신을 각각 접종할 경우 총 6번을 접종해야 하며, 5DTaP과 IPV, Hib 백신을 모두 단독으로 접종할 경우 총 9번의 접종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판릭스IPV/Hib는 생후 2, 4, 6개월에 각 1번씩, 총 3번으로 주사횟수를 줄일 수 있다. 예방 효과는 89%에 육박했다.

인판릭스IPV/Hib는 3가지 백일해 항원(PT, FHA, PRN)을 사용해 국내 시판되고 있는 소아용 DTaP 혼합백신 중 가장 많은 백일해 항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퍼타틴(PRN)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2,3PRN은 백일해균의 외피막 단백질로 호흡기 세포에 균의 부착을 촉진시키고, 후두, 폐 등 하기도에서 균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SK 마케팅팀의 이규남 상무는 “인판릭스IPV/Hib는 예방접종 횟수를 3분의 1로 줄여 소아 및 보호자의 예방접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단독백신 대비 적기 접종률을 높이고 보다 이른 시기에 완전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인판릭스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효율성을 더한 만큼 영유아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백신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GSK에 따르면 인판릭스IPV/Hib은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단독백신과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면역원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후 2, 4, 6개월에 인판릭스IPV/Hib으로 총 3회 기초접종 진행 시, 디프테리아, 파상풍, Hib, 폴리오 바이러스 1·2에 대한 면역원성이 100%, 폴리오 바이러스 3에 대한 면역원성 99.5%, 백일해 항원은 총 3가지(PT, FHA, PRN) 모두 면역원성이 100%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제약사 기술 수출 활발... 올 4조6000억

유한양행 2건 등 총 9건

올해 국내 제약사의 해외 기술수출은 총 9건, 규모는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유한양행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 후보물질을 미국의 길리어드에 수출한 이래 9건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됐다. 유한양행과 GC녹십자가 각각 2건, 티움바이오, SK바이오팜, 올릭스, 레고캠바이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각각 1건이다.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등을 포함한 전체 계약 규모는 4조5796억원에 이른다. 계약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GC녹십자의 기술이전은 제외된 수치다.

국내 병원, 대학,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특허를 국내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병원·대학·연구소 등에 설치된 보건 의료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기술이전 계약은 282건, 규모는 305억원이다.

보건 의료 TLO는 병원·연구소가

보유한 기술·특허를 기업에 이전하고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이다. 보건 의료 TLO의 기술이전 계약은 2014년 40건에서 2015년 210건, 2016년 482건, 2017년 405건, 2018년 464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대학교병원 내오진판 등의사와 연구자가 직접 창업에 나서는 경우도 확산하고 있다. 연구 중심 병원을 통해 창업한 기업 수는 2013년 1개에서 지난해 18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7개가 창업했다. 이번 성과는 이날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엘타

워 컨벤션에서 열리는 ‘2019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공개됐다.

성과교류회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간다’를 주제로 주요 기술사업화 성과 발표와 공개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또 보건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4명과 기업 6개, 우수 혁신형 제약 기업 4개에 표창이 수여됐다.

노홍민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축사에서 “보건산업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라며 “아이디어와 현장 경험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한독-제넥신 협력 강화 마곡R&D센터 공동설립

한독과 제넥신은 두 회사의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자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R&D센터’를 공동 설립한다고 31일 밝혔다.

한독과 제넥신의 마곡 R&D 센터는 연면적 약 6만912㎡ 규모로 ‘한독 R&D 센터’, ‘제넥신과 프로젠의 신사옥 및 R&D 센터’, 두 회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용공간으로 구성된다. 다음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한독 R&D 센터는 연면적 약 2만1천837㎡에 지상 8층, 지하 3층으로 설립된다. 완공 후에는 한독 중앙연구소와 신약 바이오 연구소가 마곡으로 이전한다.

제넥신과 프로젠의 신사옥 및 R&D 센터는 연면적 약 3만9천75㎡에 지상 9층, 지하 3층으로 마련된다. 주차장과 공용공간을 제외한 6개 층은 제넥신, 2개 층은 협력사인 프로젠 사옥으로 쓴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마곡 R&D 센터는 제넥신과의 협력뿐 아니라 한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강직성척추염 환자 진료과 전전... 진단 3년 걸려”

대한류마티스학회

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오인 조기 발견, 꾸준한 치료 등 필요

강직성척추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기간이 평균 3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류마티스학회가 강직성척추염 환자 1012명을 대상으로 ‘강직성척추염 진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단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진료과를 전전하는 ‘진단 난민’ 기간이 평균 3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금요일을 ‘강직성척추염의 날’로 선포하고 강직성척추염 진단이 늦어질 경우 통증과 척추변형의 위험이 커짐을 전하며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직성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척추 마디가 굳어 변형되는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다. 주로 소아, 청년기에 시작되며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비교해 사회, 경제적 타격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질병통계에 따르면, 강직성척추염 환자 수는 2010년 3만



사진설명사진설명사진설명사진설명

1802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만3686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강직성척추염은 눈에 보이는 증상만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질병이다. 그러나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전국 26개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10대~70대 강직성척추염 환자 1012명(남자 767명, 여자 235명, 무응답 10명)을 대상으로 ‘강직성척추염 진단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확하게 진단받지 못하고 진료과를 전전하는 ‘진단 난민’ 기간이 평균 39.78개월로, 약 3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직성척추염에 따른 염증이

눈을 침범하는 포도막염이 동반된 환자(255명)는 강직성척추염을 진단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평균 52.89개월로 더 길었다. 이는 강직성척추염의 진단과 치료 시기가 늦을수록 척추 외 다른 신체 부위에까지 침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뜻한다.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초기 증상이 척추 중심으로 나타나 환자 대부분이 고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 등 단순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강직성척추염이 척추 외에도 무릎이나 발목, 손목, 팔꿈치 같은 팔다리 관절에도 관절염 증상을 동반하는 탓이다.

이번 조사 대상 환자들 중 류마티스내과를 가장 먼저 찾은 환자는 18.2% 정도에 그쳤으며, 정형외과(61.5%), 신경외과(7.2%), 통증의학과(4.5%), 재활의학과(3.1%) 등을 먼저 찾은 경우가 흔했다. 이들은 관절염과 허리디스크는 물론, 만성근육통, 통풍,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받기도 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박성환 이사장은 “강직성척추염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난 것은 여러 곳을 헤매던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된 시간 차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박종연 삼성서울병원 의안사 美의안협회 ‘명예의 상’ 수상

삼성서울병원 안과 검사실 박종연 의안사(사진)는 지난 10~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파크 센트럴 호텔에서 열린 ‘미국 의안협회’(ASO) 추계학회에서 ‘명예의 상’을 수상했다. 박 의안사는 미국 의안협회 정회원으로서 연구와 인도적 노력으로 모범적인 성과와 정회원 자격 요건을 뛰어넘은 공헌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전 세계 우수 의안사 회원들이 신뢰하는 ‘가장 존경받는 의안사’를 기념하며 제정된 영예다.



지난 2014년 ‘한국인 최초’ 미국 의안협회 정회원에 선정, 의안 분야 국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박종연 의안사는 수상 소감으로 “이번에 받은 상금은 의안사를 꿈꾸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전해 삼성서울병원의 위상을 높였다.

/이세경 기자

현대차그룹, 이라크 환아들에 희망 선물

심장병·안구손상 환자 수술·치료 지원

현대차그룹은 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환자 2명과 안구 손상 환자 1명을 한국에 초청해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수술 등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15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입국한 이들 3명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과 경기도 부천 세종병원 두 곳으로 나누어 정밀검사와 수술을 받았다. 오는 12월에도 심장병 환자 4명이 이라크에서 추가로 입국해 치료를 받는다.

이라크 환아 의료 지원은 현대차그룹이 한국이라크우호재단과 연계해 한국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게 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이라크 심장병 환아와 보호자 등 22명을 불러 3주간 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한병도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이라크에서 온 환자 및 보호자, 국영방송 취재진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의료 지원 행사 및 현대차그룹 사업장 견학은 지난 1월 한국·이라크 수교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정부 외교 특사단의 이라크 방문과 그간 현지에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현

대건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CSR) 활동을 펴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30년 장기고객 초청 '미식행사'

SK텔레콤은 'T멤버십' 이용자와 만 30년 이상 이동통신 가입고객을 초청해 호텔 식사 및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미식행사 '테이블' 이벤트를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테이블' 이벤트는 '미식과 공연의 만남'이다. 2014년부터 국내 통신사로는 유일하게 T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식사 및 공연 관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5년 간 총 9만3000여명 고객이 미술관 셰프의 요리,

전국 100개 레스토랑 식사 등과 공연 관람을 경험했다.

올해는 테이블 행사 6년째로, T멤버십 이용자와 동반자 1인을 포함해 1000명을 초청하는 '테이블2019'와 함께 만 30년 이상 가입고객 전원과 동반자 1인을 초청하는 'T아너스 테이블'도 별도로 진행한다.

참가 응모는 T멤버십에 가입하면 누구나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T멤버십 전용 애플

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고객 중 추첨으로 선정된 500명은 동반자 1인과 함께 호텔 코스요리와 가수 이문세의 공연 관람 혜택을 즐길 수 있다.

'T아너스 테이블' 행사는 만 30년 이상 가입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30년 이상 가입고객과 동반자 1인을 초청해 12월 20일과 21일, 점심과 저녁 4차례로 나눠 호텔 식사와 함께 미스트롯 5인의 공연이나 이선희, 신승훈, 홍진영의 공연을 선택해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차량 화재, BMW만 문제인가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최근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언론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독 BMW 화재에만 예민하다. 매년 약 500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 이를 하루로 나누면 일 평균 15대 정도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뿐 아니라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에서도 화재가 발생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상용차에서 차량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포터나 봉고의 경우 개인 사업자들이 트럭 뒷부분 등을 개조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며 "차량 관리를 제때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BMW 차량 화재도 비슷하다. 10월 28일 화재가 난 BMW 530d GT 차량은 주행거리가 30만km를 넘은 노후 차량으로 화재 전 점검에서 엔진 오일이 흘러나왔다. 해당 차량은 EGR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화재가 난 차량(640d)은

이미 EGR 밸브의 리콜을 진행한 차량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지난 10월 초 태풍에 차량이 침수돼 전선 처리된 차량을 외부 수리업체에서 무리하게 수리해 운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화재가 난 차량(525d xDrive) 역시 리콜 수리가 완료된 차량으로 화재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짧은 기간 차량 소유자가 여러 차례 변경됐다는 점에서 노후한 매연저감장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기된다.

문제는 BMW와 정부 기관이 이번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EGR 때문에 단정짓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BMW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물론 기존 고객들도 화재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지만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뒤 책임 소재를 묻는 자세도 필요하다. 운전자도 자동차 안전 점검은 필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동차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48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편 보기 좋은 날. 60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 72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금물. 8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 소** 37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49년생 작은 부주의로 큰 계약을 망칠 수 있다. 6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주변 조언을 구하라. 73년생 직장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85년생 근거 없는 칭찬에 휘둘리지 마라.
- 호랑이** 38년생 증여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 50년생 사고의 폭을 넓혀야 바로 볼 수 있다. 62년생 새로운 일이 기대만큼 실리가 없다. 74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 86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 토끼** 39년생 재할용으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 51년생 가족보다 친구의 위로가 더 그림다. 6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75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 87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 용** 40년생 사랑 믿음 소망을 갖고 살자. 52년생 새로운 계약으로 좋은 기회를 만드는 날. 64년생 언제나 병 주고 약 주는 친구가 많음. 76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하라. 88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자.
- 뱀** 41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그림다. 53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65년생 아제의 동자가 오늘은 적이 되어 온다. 77년생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아프다. 89년생 재물로 성과를 내서 또한 명예가 높아진다.

- 말** 42년생 남의 흉을 감추주면 나에게 유리. 54년생 진취적 행동이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66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78년생 유혹이 있어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90년생 진인사대천명이나 최선을 다해라.
- 양** 43년생 길 떠나려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55년생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67년생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날이니 자중하라. 79년생 들떠있는 거품은 곧 사라지니 현실에 직면해야. 91년생 다소 무리질러도 도전을 해 보자.
- 원숭이** 44년생 항상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56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 68년생 자식은 도움을 줘도 당연시하니 마음을 비워라. 80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훨씬 수월. 92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을 반드시 저야 한다.
- 닭** 45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57년생 가족이 가장 소중한 친구보다 우선. 69년생 타인을 배려하면 내게도 이익. 81년생 고단한 삶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93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도 될 터.
- 개** 46년생 붉은색 숫자 7이 행운을 준다. 58년생 지금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70년생 혼자보다는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때. 82년생 동료와 협력이 좋은 성과를 낸다. 94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 돼지** 47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익. 59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71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방향이 시작. 83년생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95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방법.

김상희의四季 때를 맞추면 풀린다

단풍이 물들었다. 산자락을 곱게 장식한 단풍이 TV를 타기 시작하면 주변에서는 단풍놀이 가지는 말이 부쩍 많아진다. 겨울도 멀지 않다는 의미이다. 아침 기온이 푹 떨어졌고 산간지방에는 얼음이 언 곳까지 있다.

단풍놀이는 가을이 되어야 가능하고 눈싸움은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단풍놀이를 봄에 가겠다고 하거나 눈싸움을 한여름에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자연의 흐름인 계절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그에 맞는 시기가 각각 있다.

결혼할 때는 두 사람의 사주에 따라 좋은 때가 언제인지 봐야 한다. 사업은 시작하는 시점의 운세에 따라 재물의 향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륜지대사인 결혼은 좋은 날을 택일하려는 사람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사업을 할 때는 운세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은 당장 혼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결혼생활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한 해를 더 기다려야 결별 수를 피할 수 있는데 그때 결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불행을 불러들이는 그때의 선택이다.

필자에게는 운세가 꺾이는 시기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운이 꺾이는 시기에 사업을 펼치면 인생을 높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결혼이나 사업은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중요하고 더구나 큰일을 앞뒀을 땐 꼭 운세와 맞는 때를 찾아야 한다. 세상일은 좋은 때가 따로 있고 운세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가 바로 그때이다. 때만 맞추면 어떤 일이든 절반은 풀린 것이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5			
	4	6			7			2
1			4		5			8
6			5			2	1	
	3	4						9
			2			3		6
		2		5	8			3
8	6			4			2	
			1		6			8

	1	5	7				4	2	3
9						3			
2	5	7				8	3	1	
4			5			6			9
	9	6							
							8	5	
	2		1		5			4	
3		8		6		1			5

스도쿠 정답

6	8	9	2	1	5	7	4	3
1	2	5	6	7	4	6	9	8
5	9	1	8	5	6	2	1	7
9	7	6	8	2	1	5	4	3
5	6	8	1	9	7	4	2	3
2	1	2	7	5	8	6	9	1
8	4	6	5	9	7	4	2	1
2	5	1	4	6	8	9	7	3
7	5	9	2	1	4	8	6	3

문제 제공 =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17호

‘제임스 본드’를 마시다



(47) 다우 토니 포트

향긋한 과일 풍미에 구조감이 뚜렷하다. 단맛이 강한 포트와인이지만 마무리에서 느껴지는 드라이한 뒷맛으로 훌쩍훌쩍 계속 마셔도 질리지 않게 깔끔하다. 깊은 색감과 같이 농축미가 있지만 들이대지는 않는다. 다우의 숙성 토니 포트다.

까맣고 딱 맞아 떨어지지만 기품있는 수트. 거친 액션에 어우러지는 젠틀한 매너, 미션 완수를 위한 집중력. 그렇다. 007시리즈의 제임스 본드와 닮았다.

다우를 전 세계 프리미엄급 포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제임스 본드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까지도 비슷하다.

포트 와인 '다우'의 아시아 수출 담당 조지 누네스(Jorge Nunes)은 지난 30일 한국을 방문해 "얼마 전 숙성 토니 포트를 놓고 브레인 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던 연상이 바로 '제임스 본드'였다"며 "와인 메이커가 5세대로 넘어오면서 숙성 포트 와인의 스타일부터 포도 재배 환경이나 소통 방식까지 다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트는 포르투갈의 주정강화 와인을 말한다. 발효 중간에 알코올 도수가 높



(왼쪽부터)다우 10년 숙성 토니 포트, 다우 20년 숙성 토니 포트, 다우 30년 숙성 토니 포트 /나라셀라

은 브랜드를 첨가해 잔류 당분 높고, 알콜 함량이 17~21%로 높다.

포트의 탄생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당시였다. 영국은 프랑스 와인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포르투갈 와인을 들여오지만 와인이 변질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와인에 브랜드를 첨가해 보존성을 높였던 것이 바로 포트다. 리즈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항 오포트(Opporto)에서 주로 와인을 실어 나르면서 포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브랜드 첨가로 보관성은 물론 맛과 향이 배가 되면서 지금의 포트 와인을 생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숙성 토니 포트는 긴 시간 배럴에서 공기, 나무와의 접촉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다우 10년 숙성 토니 포트'는 다우의 5세대 등장에 따른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과거 10년 숙성 토니 포트와 비교하면 더 진해진 색감과 과

일 풍미가 뚜렷하다. 탄닌의 구조감도 강화됐다. 다우 숙성 포트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길고 드라이한 뒷맛은 그대로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은 새롭게 바뀐 다우의 10년 숙성 토니 포트를 맛보고는 "프리미엄 포트로서 다우에 기대하고 있던 긍정적인 변화"라며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우 20년 숙성 토니 포트'는 숙성 토니 포트의 완벽한 예로 꼽힌다. 10년과 비교하면 맛과 향이 확실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조지는 "10년 숙성 토니 포트를 10년 더 보관한다고 20년 숙성 토니 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자체부터 더 좋은 것을 쓴다"며 "복합적인 과일 풍미에 집중도와 구조감은 물론 우아한 균형감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단맛에 말린 과일이나 과일 케이크,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마시지만 살짝 차가운 온도면 식전주로도 훌륭하다. 알콜 도수가 높다보니 오픈 후 한 달까지도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다우 30년 숙성 토니 포트'는 잘 그을린 오크통에서 30년간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부드러운 과일의 맛이 더해졌다. 장기간의 오크 숙성을 통해서만 발현되는 복잡한 아로마의 층이 그대로 전해진다. 뒷맛이 길게 지속되며 거의 코냑에 가까운 풍미다. 다크 초콜릿, 호두 혹은 말린 과일과 잘 어울리며, 그 자체로도 훌륭한 맛이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편의점도 코세페!... '역대급 할인'

(코리아세일페스타)

수능·빼빼로데이 등 대목잡기 나서 GS25 파격상품 111종 '하나더데이' CU 1+1 등 '덤 증정품' 30% 확대 세븐일레븐 뉴트로 콘셉트 빼빼로 이마트24 카드+통신사 중복 할인

편의점들이 11월 대목 맞이에 나선다. 빼빼로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3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11월 한 달간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인 '하나더데이'를 진행한다. 1400여종의 정기 행사 상품과 전년 대비 2.2배 늘어난 111종의 파격상품, 5종의 제휴 할인 행사, 모바일 앱을 통한 기부 행사가 준비됐다.

GS25 측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11월에 열리는 국내·외 쇼핑 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를 담아 '하나더데이' 행사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CU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블랙위크데이'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1000개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덤을 증정한다. 일반적인 +1 행사보다 대상 상품 수가 약 30% 확대됐다. 특히,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행사 기간 동안 1+1 행사 상품 수를 평소의 2배 수준인 250개로 확대했다.

+1 행사 대상 상품은 커피, 안주, 스낵, 과일 등 식품류에서부터 핫팩, 속옷, 건전지,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CU는 행사 기간 동안 요기요, BC카드와 함께 배달서비스 가격 할인 이벤트를 전개하고,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인 포켓CU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마트24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델이 GS25의 역대 최대 행사인 '하나더데이' 안내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리테일

'스윗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1만 원권,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형상화 한 돈뭉치 패키지와 대형 골드바 패키지 등 재치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기획상품 외에도 이마트24 아이미P L상품(웨이퍼롤 2종, 통쿠키 2종, 봉지 쿠키 3종), 토블론, 밀가 등 유명 초콜릿 브랜드 제품, 다양한 사이즈의 캐릭터 인형 16종을 포함해 총 120종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카드사별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카드 할인 시 K T 멤버십 중복 할인도 적용 가능하다.

세븐일레븐은 빼빼로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겨냥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뉴트로 콘셉트의 '바른생활빼빼', '따지말고빼빼' 등 총 2종의 이색 상품을 출시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한 상품을 선보인다. 수험생을 위한 선물로는 합격 응원 메시지를 담은 빼빼로 수능기획팩(3종)과 '보여줘 너의 수학능력' 등 언어유희로 재미를 더한 찹쌀떡 2종을 판매한다.

미니스톱은 빼빼로데이를 맞아 주요 제품 할인과 반값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다. 또 결제수단에 따라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민서 기자

“기능+디자인 운동복 찾다가 직접 만들었죠”

인터뷰 | 이수연 '에슬래저 패션' 잭시믹스 대표

“기능에만 충실한 기존 스포츠전문 브랜드 제품 속에서 디자인까지 고려한 운동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입고 싶은 운동복'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에슬래저룩' 열풍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레깅스'는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주목 받는 품목 중 하나다. 몸에 딱 붙는 운동복으로, 편안하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강민준 대표와 함께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을 이끌고 있는 이수연 대표는 '입고 싶은 레깅스'를 앞세워 에슬래저 패션 브랜드 잭시믹스의 고속 성장을 이룬 일등공신이다.

지난 4월 한국투자파트너스, KTB네트웍, IMM인베스트먼트, 로그인베스트먼트로부터 2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패션·유통업계 유니콘으로 주목 받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올해 3분기 마감 매출 실적만 전년 동기 대비 290%의 성장을 이뤘다. 이대로라면 연

말에는 300% 이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연 대표는 가파른 성장을 이룬 첫 번째 비결에 대해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며 "과연 나라면 정가를 주고 이 옷을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제품을 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한 브랜드의 대표로 오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평소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기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오래 전부터 정말 많은 레깅스를 입어봤다. 낡신타는 레깅스는 불편하고, 편안한 레깅스는 디자인이 부족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운동복은 착용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레깅스는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속옷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어봤을 때와 운동 시의 착용감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운동을 하는 순간 들뜸이나 흘러내림 같은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최대한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제작 SNS 적극 활용해 2040 저격 자체개발로 독자적 소재 보유 해외 진출 등 오프라인 확대

이수연 잭시믹스 대표

제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잘 빠르게 파악하고, 주고객층을 겨냥한 적절한 마케팅을 펼친 점도 성장에 주효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그는 SNS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이 잭시믹스만의 차별점이라고 꼽았다.

이 대표는 "워라밸 열풍으로 현대인들이 운동복을 많이 찾게 된 시점에 SNS를 적극 활용한 마케팅으로 주 고객층인 2040 여성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했다"고 말했다.

소재 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3월 출시한 프리미엄 라인 '블랙라벨 하

이플렉시 레깅스'는 독자적인 원사 비율로 자체 편직해 움직임 때 편안하고 세탁 변형이 거의 없다.

국내 대표 레깅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잭시믹스는 온라인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프라인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점은 잭시믹스 핏 스토어인 가로수길점과 홍대점, 롯데몰 수지점 등 3곳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남성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는 중국, 일본, 대만, 호주, 우크라이나, 홍콩 등에 수출을 진행 중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신라스테이-비비고 '한식 쿠킹 클래스'

신라스테이가 CJ제일제당과 손잡고 한식 알리기에 나섰다.

신라스테이는 신라스테이에 투숙하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쿠킹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스테이 위드 비비고(STAY with bi bigo)'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쿠킹 클래스에 참여해 한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쿠킹 클래스는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시연, 실습, 시식의 순서로 운영된다.

전 과정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비비고 제품을 활용한 떡만둣국, 떡갈비, 잡채 등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다.

쿠킹 클래스는 '스테이 위드 비비고' 패키지나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신라스테이에 투숙한 외국인 중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패키지 이용기간은 11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김민서 기자

[BNK Inside]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
 고객을 위한 일이니까,
 BNK금융그룹은 고객 안에서
 금융의 길을 찾겠습니다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되어봅니다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대기업도 두 손 드는데’... 광주시 시내면세점 유치 난망

중 관광객 급감에 수익성 없다 판단 최근 한화, 두산 면세점 사업권 포기 14일까지 유치 실패시 특허권 반납

광주시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외국인 관광객 수 대비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로부터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받은 뒤 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인천공항 신세계면세점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유통 3사 대기업들이 모두 손사래를 쳤다.

광주시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신규 대기업 면세점 대상이지만 일반 경쟁인 만큼 중소기업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아 중소기업들과도 접촉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시내면세점은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유통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적자가 쌓이면서 한화에 이어 두산그룹도 최근 사업권을 포기했다.

서울의 시내면세점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다 광주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적은 것이 투자 기피 요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13년 15만8000명에서 2014년 5만6000명, 2015년 10만6000명, 2016년 8만6000명, 2017년 14만4000명으로 전국 외국인 관광객 수 대비 1%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시내면세점 운영에 따른 특허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광주시에 이 기간에 시내면세점 투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 특허권을 반납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서울지역 대기업들이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 지리적·경제적 여건상 열세인 광주는 더욱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지만 실패할 경우 내년에도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내면세점은 모두 26개로 전국 광역자치체 중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충남 등 5곳만 시내면세점이 없다.

/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지난 17일 광주 북구청·북광주 농협 직원들과 육군 제31사단 503여단 3세대 장병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여파로 도복 피해를 입은 효령동 일대 농가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뉴시스

광주 남구,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농가 18곳서 39.9t 피해 발생

광주시 남구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벼를 전량 매입한다.

남구는 가을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관내 벼 재배 농가의 손실 최소화와 품질이 낮은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벼를 매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남구지역에서는 대촌동과 송암동, 효덕동 18농가에서 39.9t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품종 제한 없이 농가에서 요청한 물량 전체를 수매할 방침이다.

매입 대상은 건조 벼이며 30kg 포대 벼와 600kg 대형 포대에 담긴 건조벼를 수매할 예정이다.

피해 벼의 특성상 쭉정이 등이 포함돼 무게가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 포대 벼의 경우 40kg짜리 포대에 쭉정이 등을 제거해 수매하고, 대형포대의 경우도 같은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에 76.9% 수준이다.

남구 관계자는 “태풍 피해 벼 매입은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본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차정준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일 (금)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9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56 | 해질 / 17:35

연천 5/18, 동두천 7/19, 가평 6/19, 파주 5/18, 서울 9/19, 양평 9/20, 인천 11/18, 수원 10/18, 용인 10/18, 평택 9/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

정장선 시장 헌법재판소 1인 시위 행정효율·주민편의 위해 귀속 촉구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 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

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개항기로 떠나는 청춘 파티 ‘신포야회’

인천 중구, 내일부터 신포청년물서

인천 중구가 개항누리길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청춘파티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2일부터 ‘신포야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개항누리길상점가와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 공동 주관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개항누리길상점가만의 정체성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개항누리길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상점가의 변화된 모습을 고객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신포야회’는 개항시대의 의상과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11월 2일에는 신포청년물서 야외무대에서 극 공연과 왈츠무대, 개항의상 베스트 시상 등이 펼쳐진다.

11월 15일과 16일에는 개항당시 먹거리 체험과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신포야회는



인천 중구 개항기로 떠나는 신포야회 포스터

인천 중구만의 개항시대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포야회 관련 공연 및 체험 행사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항누리길상점가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광주시 테마파크 구상 실현 가능성은 ‘글썽’

광주시에 이전 추진 중인 군 공항 부지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이전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는 데다가 사업성이나 투자 실현도 불투명해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0대 시책 가운데 하나인 군 공항 부지 스마트 시티·테마파크 조성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을 전제로 2028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3배가 넘는 8.2㎢(248만평)에 달하는 기존 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 일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시 공무원들이 지난 6월 중국 상하이로 찾아 국제 테마파크 박람회, 디즈니랜드 등을 참관했다.

테마파크의 세계적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요 참여기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전남=차정준 기자



[금융] 회계발전 공로 윤종규 KB금융 회장 '철탑산업훈장' 05



Life



[산업] KT 5G 초저지연기술 세계 첫 성공 08

서울시 공간 풀어 경제활력... 내년 40兆 육박 '슈퍼예산'

2020 서울시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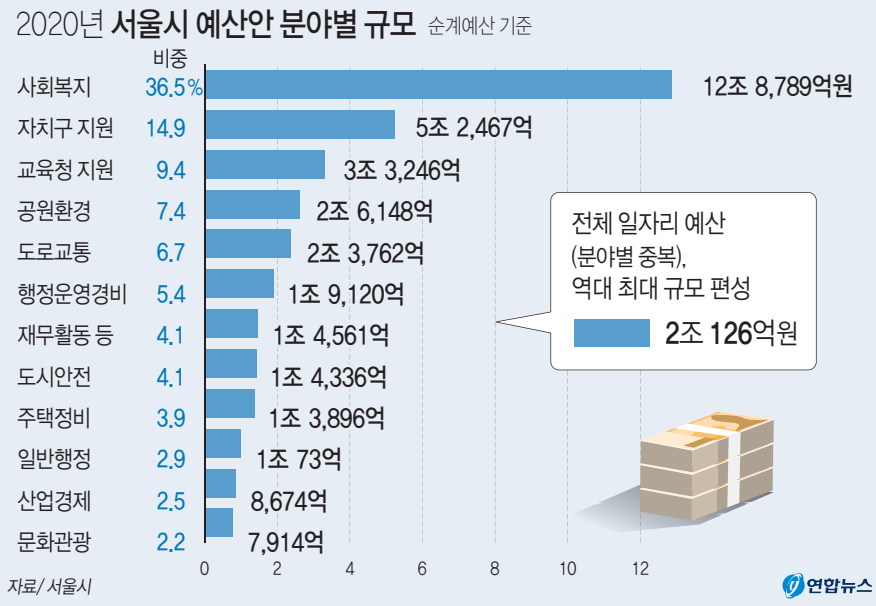
내년 예산 올해보다 10.6% 늘려 사회복지 예산 사상 첫 12兆 돌파 신혼부부·청년 등 7대 분야 집중

서울시가 내년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사상 첫 12조원을 돌파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은 268만원, 1인당 시세 부담액은 195만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은 숫자로 표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라며 "누군가는 재정을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예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의 문제다"고 말했다.

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 확충의 7대



분야에 집중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22%로 늘어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 여력을 비축한 재정 우등생이다"며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4년 연속 AA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 이어 "재정 안정성에 문제없다.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면 알뜰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5.4%(1조7215억원) 늘어난 12조8789억원으로 12조원 선을 처음 돌파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올해(1조5810억원) 대비 27.3% 증가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0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31일 오전 서울시장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근로에 143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시는 주거지원에 2조4998억원을 편성했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에 1조5431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3200호 공급에 409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에 4085억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360억원을 투입한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은 아동

수당 지급(4369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90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지원(826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원) 등에 쓰인다.

청년 지원에는 4977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3만명 지원에 904억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에 40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104억원을 배정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2849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 지원에 463억원, 양재R&D 혁신지구 육성에 192억원, 혁신성장펀드 출자에 520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8111억원을 편성했다.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2658억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에 2227억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06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집·학교·직장과 10분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3324억원을 배정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 삶에 보탬이 되고자 최대한 확대 편성했다"며 "약속한 대로 사람에게 투자해 서울 경제발전에 발판이 되고 시민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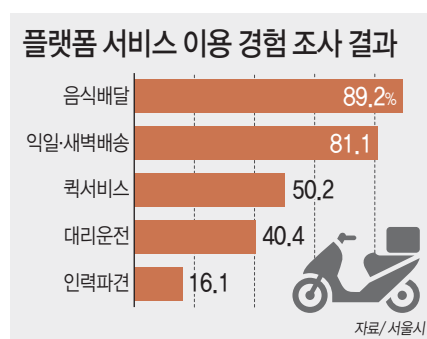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민 10명 중 9명 "플랫폼 노동 잘 몰라"

노동 개념 인지 못해... 대책 필요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음식배달, 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민의 90%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이란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통해 상품처럼 거래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뜻한다.

서울시는 31일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6일 서울 거주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민의 86.9%는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플랫폼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89.2%로 가장 많았다.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가사도우미와 같은 인력파견 서비스(16.1%)가 뒤를 이었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57.7%),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3%) 등 전체 응답자의 90.7%가 플랫폼 노동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오는 11월 3일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토론회를 연다. 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한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대표,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박원순, 주민들과 '광화문광장' 끝장토론

광장 인근 방문, 주민 의견 청취

박원순 시장이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선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11월 1일 종로구 삼청동과 사직동, 3일 청운효자동·부암동·평창동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31일 밝혔다.

박 시장은 각 동의 상가, 음식점,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찾아가 주민 의견을 듣는다. 3일 오후 3시30분 종로구청 강당 한우리홀에서는 현장에서 나온 쟁점 사항을 모아 합동 토론회를 가진다.

박 시장이 주재하는 토론회에는 광화문 인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간제한 없이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현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현장으로 찾아가 실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현재 문제점, 주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담겠다"며 "이와 별개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지난 1차에 이어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쌍문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115세대 들어선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우선공급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115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1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쌍문동 88-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문역 인근 612㎡ 규모 부지에 총 115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되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처리 적발

건축물 50개소 수사 총 7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의무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

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고,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삼성전자 50주년

SAMSUNG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50년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모두가 꿈을 이루고
행복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성장하며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